2010

제9집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Review of Jeju Culture & Art Policy

제주문화예술재단
JEJU CULTURE & ART FOUNDATION

발 간 사

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저변을 관통하는 에너지로서의 문화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불어 오늘날 창의성은 정보, 지식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자 국가 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정도시가 지닌 고유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해당지역 내에서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도시들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 공식 결의한 것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이때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의「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제9집에 담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창의도시의 역할',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례분석'을 통한 '창의도시 제주의 현실과 과제'의 통찰은 실로 뜻 깊은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내 공공문화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제주문화예술 인재육성·인프라 구축 방안, 지역문화정책의 현주소와 추진 방안 등을 논단으로 다룸으로써 제주문화예술 정책 수립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은 한 시대의 표상이자 그것을 이끄는 힘입니다. 한 사회의 문화예술의 수준과 문화경쟁력의 크기와 질을 결정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문화마인드에서 비롯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사회가 구성원들의 문화마인

드를 제고하기 위해 무엇을 투자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제9집이 그와 같은 고민의 작은 해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쪼개어 옥고를 집필해주신 집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제주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11.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 영 흠**

목 차

특집논단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창의도시 역할 / 김기봉 ····· 5

❍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례분석 / 오홍석 ····· 17

❍ 창의도시 제주의 현실과 과제 / 김석윤 ····· 29

논 단

❍ 지역문화정책의 현주소와 추진 방향 / 임학순 ····· 47

❍ 제주문화예술 인재(人才)육성과 인프라구축 방안 / 김일호 ····· 57

❍ 제주도내 공공문화 인프라와 효율적 운영 방안 / 김해곤 ····· 67

❍ 제주문학관 건립 추진방향과 콘텐츠 / 양전형 ····· 85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창의도시 역할

김 기 봉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외래교수

〈차 례〉

Ⅰ. **들어가는 글**

Ⅱ. **창조도시**
1. 창조도시 등장 배경은 무엇인가?
2. 창조도시의 개념은 무엇인가?

Ⅲ.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1.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2. 왜 수많은 도시가 가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일까?
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역할은 무엇인가?
4. 지금 어떤 도시들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가?

Ⅳ. **나오는 글**

Ⅰ. 들어가는 글

이야기가 없는 도시는 없다. 도시의 역사는 짧지만,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축적되어 전해져 오거나 역사적 유물, 유적 등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던져준다.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국가와 도시의 발전과정을 통해 그 이야기들은 소실되거나 묻히기도 했고 간혹 살아서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어느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빼어난 경관이나 전시관, 기념관 등을 방문하여 그 도시만의 '아우라'를 만나고자 한다. 그리고 매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도시를 방문할 것을 권한다.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이 방문하게 되면 방문객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짓기도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길도 새로이 내거나 넓히기도 한다. 건물도 보수하거나 새로 멋있게 짓기도 한다. 입소문이 산업으로 발전한다. 도시의 매력, 즉 그 도시의 문화가 관광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전 세계 어디를 가 봐도 유사한 풍경이다. 그러다 보니 모든 도시가 획일화되거나 평균화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도시의 표준화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마저 동일화시켜 버렸다. 그러나 한때는 이야기보다 기술과 문명을 중시하던 시대가 있었다. 큰 공장을 짓거나 커다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곧 지역발전이라고 생각했다. 지역 주민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업이나 공장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세원으로 지역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저마다 기업과 공장유치에 나섰다. 불과 몇 년 전 아니 지금도 그러한 행태들은 이어지고 있다.

근대는 인간의 자각에서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것을 신으로부터 물어보고 신의 매개자로 자처했던 성직자들과 왕, 귀족들이 두텁게 쌓아올렸던 비밀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신이 있던 자리에 인간이 들어섰다. 인문정신의 회복을 우린 르네상스라 부른다. 르네상스는 근대의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였다.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통해 인간은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었다. 그리고 왕과 성직자가 누리던 권력은 부르주아지라는 신흥 상인계급과 지식인들에게 넘어갔다.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시민이라 불렀다. 부르주아지는 성내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성은 도시로 변해갔다. 그 도시는 사람들의 욕망으로 채워져 나갔다. 인간은 오만해지기 시작했다. 더 넓게, 더 높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 도시는 근대의 바벨탑, 즉 빌딩들로 가득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해 갔다. 유럽의 이러한 모습은 과학기술과 교통항해기술 등의 발달에 힘입어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갔다. 근대화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전쟁도 서슴지 않았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은 서로 앞서서 서양의 근대문명을 받

아들이고자 하였다. 그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했다. 서양의 문화가 전 세계의 표준화가 된 것이다.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세계화' 또는 '지구화'라고 부른다. 근대문명은 화석자원의 문명이기도 하다. 석유 등을 이용하여 차, 비행기, 각종 공장 등을 짓고 운송을 위하여 도로를 닦는다. 그러한 과정을 산업화라고 부른다.

그러나 화석자원의 고갈과 인간의 탐욕이 만든 환경 파괴는 지구 온난화라는 대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생각에 대해서 의문과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무엇을 위한 발전인가?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은 진정 행복해지는 것일까? 근대화를 일찍 시작한 나라에서는 '탈근대'를 이야기한다. 산업화의 패러다임도 제조업이나 공업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이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의 삶을 체험하거나 깨달은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은 문명, 산업화의 이름으로 난개발에 동참하고 있다. 지금은 그러한 혼란과 혼돈의 과도기다.

Ⅱ. 창조도시

1. 창조도시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1) 도시 재생적 관점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급기야 공동체마저 무너지는 도시의 죽음을 목격하게 된다. 멀쩡하던 도시들이 산업체계 개편 과정에서 혁신하지 못해 공동화되거나 도시발전이 정체된다. 이럴 때 문화와 예술로 도시의 재생을 시도하자는 주장들이 제기된다. 주로 유럽의 도시재생, 도시계획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사람·문화·자연이 공생하는 Good City, Human City를 꿈꾸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도시를 Creative City 즉 창조도시라 부르기 시작했다. 구도심·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시 리모델링의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시도 등으로 도시의 변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사례들이 성공적이라 평가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러한 도시발전모델을 가리켜 창조도시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2) 경제 활성화 관점

이케가미 준 교수는 창조도시 개념 등장의 배경으로 유럽 복지정책의 실패와 분권정책을 들고 있다. 복지정책 때문에 유럽 각국의 정부들은 재정적 위기를 겪게 된다. 그래서 복지국가 뒤에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이 주도하면서 분권에 대한 지방도시의 자립을 유도한다. 그 방식이 바로 창조도시다. 즉 기존의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개발식 방법이 아니라 창조성을 가지고 창조산업, 창조계급 등에 주목하면서 창조경제를 주창한다. 즉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창조도시의 개념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인간자원이라는 바다에서 그 잠재성을 찾게 된 것이다.

3) 문화 다양성 관점

2002년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 일환으로 유네스코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2004년 처음으로 에든버러 도시를 창조도시로 유네스코가 지정하게 된다. 문화발전의 핵심적 요소로 창의성에 주목한 것이다. 그 창의성은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도시 간의 비경쟁적인 협력과 발전경험을 공유하여 회원국 도시 간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다양성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 창조도시의 개념은 무엇인가?

학자와 연구자마다 강조점 또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주요 연구자들의 정의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제인 제이콥스는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전제는 도시경제를 창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뉴욕과 동경과 같은 거대도시가 아니라 이탈리아 소도시인 볼로냐, 피렌체 등의 예를 들면서 거대한 소기업 군, 상생관계, 직장 이동 및 접근의 용이성, 경제성과 유연성 등을 창조도시의 구성요소로 들었다. 중요한 것은 자생성이며 그 토대로 혁신과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 자기조절 능력을 갖춘 도시가 창조도시라고 하였다.

찰스 랜드리는 “어떻게 하면 도시가 국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자립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예술문화의 창조적 파워”를 주목하였다. 또한 도

시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각종 도시문제를 어떻게 하면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 도시의 고유한 창조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창조도시의 핵심적 과제로 들었다.

일본의 사사키 마사유키는 "인간이 자유롭게 창조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와 산업의 창조성이 풍부해지고 탈대량생산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를 창조도시라 하였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조의 장이 풍부한 도시를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탈리아의 볼로냐, 일본의 가나자와 같은 도시를 '인간적인 규모의 도시'라 지칭하면서 바람직한 사례로 들었다.

리처드 플로리다는 "개인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경제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창조적인 경제시대의 주역"이라면서 '창조계급'을 강조하였다. 창조계급이 선호하는 환경을 갖춘 도시가 지속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게이처럼 독특한 성적 취향이나 다양성 등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성, 첨단 기술 등이 창조도시의 핵심 구성요소라 보았다.

위 의견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창의도시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모든 인간이 창조적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잠재력과 가능성이 발현될수록 환경과 제도, 정책 등을 통해 창조성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갖춘 도시를 창의도시라 한다.

Ⅲ.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경제학이나 도시재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창조경제, 창조계급, 창조산업 등 창조성이 가져다주는 고부가가치를 강조한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그 목적을 두거나 창조적 인재들이 거주하면서 그들의 창조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의 환경을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도시의 모델을 그린다.

그에 반해 유네스코는 '도시 간 비경쟁적 협력', '지식 및 경험 공유, 역량강화, 교육 등 장려', '공공부문과 민간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지역의 자원을 주목하고 창의적 인재가 만들어나가는 선순환시스템의 창조산업을 그린다. 그런 도시는 지속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문화다양성을 증진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인류번영에 도움을 준다고 본다. 그래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는 달리 문화다양성

에 바탕을 둔 국제도시 간의 연대 사업, 공동 사업으로 본다. 그래서 기존의 창조도시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Creative City를 창조도시로 번역하지 않고 창의도시로 읽는다.

1.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일종의 명예이며 브랜드이다. 자신의 도시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자원을 발견하고 선순환체계를 완성해 나갈 때 유네스코가 주는 격려일 뿐이다. 따라서 유네스코 규약에 따라 유네스코 이름과 로고 사용이 가능하고 지정된 도시 간의 국제/국내 협력이 가능하며 유네스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를 홍보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상당한 의무가 따른다. 지정된 도시는 2년에 한 번씩 창의도시로 선정되어 활동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만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을 해지하고 이후 유네스코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즉 이름과 로고는 바로 브랜드에 대한 표시다.

2. 왜 수많은 도시들이 가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일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로 지정되면, 7개 분야 중 지정된 영역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인정받는 것이다. 즉 도시의 브랜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브랜드가 가져다주는 도시의 이미지, 홍보 효과는 매우 크다. Good City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도시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평가받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많은 창조적 인재나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로 인한 부가가치는 매우 높다.

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역할은 무엇인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은 문화산업 지원 사업 중의 하나다. 목적은 민·관협력을 통해 도시를 발전시키며 도시 간에 새로운 국제협력을 모색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자는 것이다. 전진성 팀장(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팀)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은 2004년 10월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 사업(Global Alliance for

Cultural Diversity)'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잠재력을 문학, 민속예술, 음악, 디자인, 미디어아트, 미식, 영화 7개 분야 가운데 한 가지 분야로 특화해 관련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은 물론 해당 도시의 고유문화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세계적 차원에서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은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기반으로 문화산업의 창의적, 사회적, 경제적 가능성을 확장하여 궁극적으로는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4. 지금 어떤 도시들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가?

2004년 10월 영국 에든버러 도시가 문학 분야에 최초 지정되었다. 이후 7개 분야에서 신청한 도시들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도 이천시와 서울시가 민속·공예분야와 디자인분야에 창의도시로 선정되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 (2010년 7월 현재)는 17개국 25개 도시다.

○ 문학 분야 UNESCO Cities of Literature
에든버러(영국) Edinburgh, UK
아이오와(미국) Iowa City, Iowa, USA
멜버른(호주) Melbourne, Australia
더블린(아일랜드) Dublin, Ireland

※ 선정기준
- 편집의 독창력
- 출판사의 양적·질적 다양성
- 문학적 도시환경 및 축제개최
- 도서관, 서점, 문화센터 보존

○ 영상 분야 UNESCO City of Film
브래드포드(영국) Bradford, UK

※ 선정기준
- 영화촬영소, 영화세트장

- 영화인 양성센터 등 기반시설
- 영화제작, 배포, 상업화 연결
- 축제, 이벤트 개최
- 기록보관소, 박물관, 신작발표회

○ 음악분야 UNESCO Cities of Music
볼로냐(이탈리아) Bologna, Italy
겐트(벨기에) Ghent, Belgium
글래스고우(영국) Glasgow, UK
세비야(스페인) Seville, Spain

※ 선정기준
- 음악창조 활동 공간 조성
- 전문 음악학교, 예술학교 유무
- 국제적 음악축제 및 행사 개최
- 독특한 장르의 음악 및 음악 산업 활성

○ 공예와 민속 UNESCO Cities of Craft and Folk Art
아스완(이집트) Aswan, Egypt
가나자와(일본) Kanazawa, Japan
산타페(미국) Santa Fe, New Mexico, USA
이천(대한민국) Icheon, Republic of Korea

※ 선정기준
- 독특하고 전통 있는 민속예술공예
- 공예작가와 지역예술인 확보
- 예술인 양성센터
- 축제, 전시회, 박람회, 시장 등
- 박물관, 수공예품 상점 등 기반시설

○ 디자인분야 UNESCO Cities of Design
베를린(독일) Berlin, Germany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Buenos Aires, Argentina

고베(일본) Kobe, Japan
몬트리올(캐나다) Montreal, Canada
나고야(일본) Nagoya, Japan
선전(중국) Shenzhen, PRC
서울(대한민국) Seoul, Republic of Korea
상하이(중국) Shanghai, PRC

※ 선정기준
- 디자인산업(건축, 인테리어, 패션 등)
- 디자인학교, 연구센터
- 디자이너 활동범위
- 디자인박람회, 이벤트 개최 경험

○ 미디어예술분야 UNESCO City of Media Arts
리옹(프랑스) Lyon, France

※ 선정기준
- 디지털기술의 창조산업화
- 주민참여, 삶의 질 향상 미디어아트
- 미디어 아티스트 연수 프로그램
- IT와 디지털 대중매체 활성화

○ 음식분야 UNESCO Cities of Gastronomy
포파얀(콜롬비아) Popayan, Colombia
청도(중국) Chengdu, PRC
오스터순드(스웨덴) Östersund, Sweden

※ 선정기준
- 전통식당과 요리사 참여의 미식학 커뮤니티 형성
- 전통지역요리 노하우 및 요리실습
- 전통음식시장 활성화
- 전통음식 산업개발 및 음식축제
- 생물다양성 보전계획 포함

Ⅳ. 나오는 글

현재 세계 각 도시가 가입 신청을 준비하는 가운데 특히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이 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해시, 전주시, 강릉시 등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으며 이번 6·2지방선거 이후에 부산시, 고양시, 인천 남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부산은 이 사업을 위해 별도의 전문 직원을 채용하고 부산 도시창조포럼이란 단체도 결성하였다.

그러나 심히 우려되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건강도시'에 있었기 때문이다. 시정 전반의 의사결정 중심에 시민의 건강을 두고 교통·환경·녹지조성 등의 사업을 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도시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건강도시(Health City)'라 한다. 위험 수위에 빠진 도시의 건강상태를 걱정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이란 뜻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1996년에 경기도 과천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그 후 2004년 부산진구, 서울시, 원주시, 창원시가 선정되면서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CH)'을 결성하였다. 2009년 현재 이 연맹에 가입한 정회원 111개 도시 중 한국이 53개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마치 하나의 유행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창의도시는 일시적인 흐름이나 트렌드가 아니다. 분명한 도시경영에 대한 철학과 지역발전에 대한 담론으로서 창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에 정보교류 및 국제협력이 가능하다는 것, Global Alliance for Cultural Diversity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활동사항을 유네스코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도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정도다. 지정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있다. 지정된 도시의 내외적 활동과 사업 내용을 2년마다 유네스코에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른 도시가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식의 따라잡기식은 곤란하다. 도시발전전략과 모형으로서 문화예술과 같은 창의적 산업으로 채택하고 그에 따른 지역 내 선순환체계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정책, 그리고 예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내 창의적 전문가그룹, 교육기관, 등록하고자 하는 분야 전문가들의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리우웨이, 『창의로 중국경제를 바꾼다』, 논장, 201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포럼, 『사회・경제・문화적 발전을 위한 창의도시의 역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09.

임상오 외, 『창조지역 도입 기본구상』, 수시보고, 지역발전위원회, 2009.

전진성 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신청서 작성 매뉴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전병태,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 지원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서 2009Ⅱ-15.

한국문화경제학회 2008추계학술대회, 「문화예술과 도시발전」, 한국문화경제학회, 2008.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례분석

오 홍 석
종합문화기획 떼송 기획실장

〈차 례〉

Ⅰ. 들어가는 글

Ⅱ. 창의도시 사례분석

1. 문학이 살리는 도시, 도시가 키우는 문학
 1) 문학도시 에든버러,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2) 창의도시와 창의관광의 접목

2. 음악이 흐르는 도시, 창의성이 넘치는 도시
 1) 로시니를 키워낸 도시 볼로냐, 대학 및 비정부단체의 활약
 2) 네트워크 가입 경제 및 문화발전에 원동력 제시

3. 영화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도시
 1) 영화 기술의 개척지에서 현대적 영화 중심 도시로
 2) 영화에 초점을 둔 창의산업 육성 지원
 3) 인적자원의 확보와 육성

4. 음식, 도시를 풍요롭게 요리하다
 1) 우수한 자연조건과 역사적 전통유산
 2) 시민 참여와 다양한 축제

5. 도시의 전통과 현대, 공예로 만나다
 1) 문화와 통상의 합류지
 2) 창의산업, 산타페 경제발전의 최우선 동력

6. 창의적 디자인, 도시의 삶을 디자인하다
 1) 다양성의 가치와 풍부한 다문화성
 2) 디자인이 곧 시민의 삶

Ⅲ. 나오는 글

Ⅰ. 들어가는 글

우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메가트렌드의 격랑 속에서 많은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탈공업화와 문화화, 글로벌 경제, 분권화, 네트워크사회 등이다. 국경이 무너져 「국민국가에서 도시(지역)에로」라는 사회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도시(지역)의 세기」가 시작되고 있으며, 첨단기술과 문화를 축으로 하는 창의산업이 도시(지역)의 성장 구동축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에 달하는 도시들이 창의도시(Creative City)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10개 이상에 달하는 도시들이 창의도시를 도시의 정책 슬로건으로 내세우거나 추진하고 있다.

창의도시가 오늘날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글로벌 경제의 질적 전환에 따른 도시의 지속 성장 및 재생이라는 경제적 가치창출이라는 측면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구환경위기, 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감축도시(Shrinking City)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때 각종 도시문제들의 창의적 해결을 통한 도시의 사회적・문화적 가치(환경적 가치 포함) 창출이라는 측면이 있다.

"세계는 지식기반 경제에서 '창의성기반 경제(Creativity-based Economy)'로 나아가고 있다." 2008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가'로 선정한 개리 하멜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는 지난 2009년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창의성의 위력을 역설한 바 있다.

오늘날 창의성은 정보, 지식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자, 한 나라의 경제적 성장을 이끄는 주요 원동력으로 간주된다. 유네스코는 특정 도시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도시들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170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공식 결의했다.

이 글은 2010년 8월 현재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7개 분야에 지정된 17개국 25개 도시들 중 각 분야의 대표 창의도시의 특징 및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과 관련하여 제주만의 고유의 창의성으로 제주만의 차별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교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표 1〉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가입 현황[1](총 17개국, 25개 도시)

(2010. 8월 현재)

영 역	도 시 명	연도	도시 특징
문학 4	영국 에든버러 호주 멜버른 미국 아이오와시티 아일랜드 더블린	2004 2008 2008 2010	저명 문학인 및 문학작품 출판 산업 활성화 국제도서 축제 개최 도서관, 작가박물관 등 다수
공예와 민속예술 4	미국 산타페 이집트 아스완 일본 가나자와 한국 이천	2005 2005 2009 2010	전통기술 일상적 예술품작업 공예, 보석 세공 등 문화유산 조각박물관, 수공업 교육센터 지역축제 개최
음악 4	이태리 볼로냐 스페인 세비야 영국 글래스고 벨기에 겐트	2006 2006 2008 2009	풍부한 음악적 전통 소유 인종언어를 초월한 커뮤니케이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음악 원자료 확보
디자인 8	독일 베를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캐나다 몬트리올 일본 나고야 일본 고베 중국 선전 중국 상하이 한국 서울	2005 2005 2006 2008 2008 2008 2010 2010	다양한 디자인산업 혁신적 거주환경조성 국제디자인 관련 행사 디자인산업 클러스터 조성 디자인 관련 인적자원 육성
미디어아트 1	프랑스 리옹	2008	활발한 민간 디지털 게임산업 문화예산의 20퍼센트 우선 배정 활발한 국제적 네트워크
음식 3	콜롬비아 포파얀 중국 청두 스웨덴 오스터순드	2005 2010 2010	음식산업 개발 음식에 대한 연구조사 음식거리 조성/전통음식 개발 음식 페스티벌, 이벤트 개최
영화 1	영국 브래드포드	2009	영화산업의 발생지 다양한 영화산업 분야발달 풍부한 영화관련 관련 시설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www.unesco.co.kr

Ⅱ. 창의도시 사례분석

1. 문학이 살리는 도시, 도시가 키우는 문학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창의적인 인력의 양성에 책은 가장 강력한 도구다. 즉 문학은 도시를, 도시는 문학을 서로 필요로 한다. 에든버러(영국), 멜버른(호주), 아이오와시티(미국) 등 3곳의 유네스코 문학 분야 창의도시는 문학의 잠재력을 도시발전에 접목시켜 문학과 도시를 모두 성장시킨 좋은 사례다. 그 가운데 문학도시의 대표 격인 에든버러를 중심으로 이들의 활동을 살펴보자.

1) 문학도시 에든버러,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2004년 첫 번째로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타이틀을 얻은 에든버러는 세계적인 문학의 탄생지로, 영국 출판 산업의 진원지로, 독서운동의 중심지로서 도시의 경쟁력을 문학의 힘으로 키워가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다.

『피터팬』, 『셜록 홈즈』, 『지킬박사와 하이드』, 『보물섬』 등은 에든버러 출신 작가들이 낳은 세계적인 문학작품으로 소설, 시, 아동문학, 평론 등 각각의 장르의 대표 작가만도 40명 이상을 꼽을 만큼 에든버러는 문학의 산실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명성은 15세기에 세계 최초로 의무교육을 법으로 시행하여 사회적 지위가 아닌 지적 능력으로 인재를 평가함으로써 18세기 지식인들의 집결지가 되었고,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도시의 높은 교육열과 독서열로 이어지고 있으며, 저렴한 학비, 연중 진행되는 독서 이벤트 등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도시 브랜드의 형성과 발전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기본 전제조건이다. 에든버러는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문학 도시로 쌓아온 전통과 명성을 지속하고 있으며, 독서운동을 펼쳐 시민들의 창의성을 성장시키고 있다. 에든버러의 문학 행사들은 시민을 위해 기획되고, 시민과 함께 한다.

2) 창의도시와 창의관광의 접목

2010년 봄에 열린 에든버러의 대표적 문학 이벤트는 'Carry a Poem'이다. 에든버러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재단은 매년 에든버러 전체가 같은 책을 읽는 '하나의 책－하나 되는 에든버러(One Book·One Edinburgh)' 캠페인을 실시한다. 매년 한 권

의 책을 선정 도서관과 학교에 무료 배포하고, 독서대회 등을 개최한다. 에든버러의 문학은 관광자원으로도 살아난다.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문학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에든버러 국제 책 축제, 스코틀랜드 국제 스토리텔링 축제 등 여러 문학 축제들도 관광자원으로 한몫을 하고 있다.

2. 음악이 흐르는 도시, 창의성이 넘치는 도시

"창의도시는 시민들에게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활동하게 하는 유기체로서의 도시"라는 창의도시 전문가 찰스 랜드리의 해석은 '도시(민)의 창의성'을 추구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음악 분야 창의도시로 지정된 볼로냐(이탈리아), 세비야(스페인), 글래스고(영국), 겐트(벨기에)는 음악적 전통과 자산을 축제로, 교육으로, 산업으로 일구어내며 도시의 창의성을 확대해가고 있다. 풍부한 음악적 자원을 정책적인 지원으로 성장시킨 볼로냐의 창의도시 이야기를 소개하기로 한다.

1) 로시니를 키워낸 도시 볼로냐, 대학 및 비정부단체의 활약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로마냐 주(州)의 주도(州都)인 볼로냐(Bologna)는 역사와 전통, 문화가 풍부한 도시로, 현재 37만4천 명(볼로냐 주도권(Greater Bologna)의 인구는 약 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다. 시내(市內)에는 1088년에 서양 최초인 볼로냐대학교가 자리하고 있고, 대학 내 위치한 역사센터와 시립 필름 보관소인 씨네테카(Cineteca)와 볼로냐 현대미술관 '맘보(MAMbo: Museum of Modern Art in Bologna)' 등 40곳이 넘는 박물관과 60곳 이상의 시립 및 대학 도서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볼로냐는 도시 내 대학 및 비정부단체들의 활약으로 풍부하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젊은이들을 주 대상으로 시내 광장 및 여러 공공장소들을 도시의 필수 요소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활동들을 지원하며 매년 새로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네트워크 가입 경제 및 문화발전에 원동력 제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은 창의성과 영감이 도시의 경제 및 문화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고,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류의 중심지(위치, 볼로냐 대학교, 공정무역 중심지, 기업)로서 정보 및 활동의 교류를 가장 우선시해왔다.

음악은 볼로냐의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볼로냐 시의회에 등록된 600여개의 문화협회 가운데 110여개가 음악협회이며, 이들은 연구, 교육, 제작, 행사기획, 라디오 프로그래밍, 공간관리, 음악관련 도구 거래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기여하고 있으며, 볼로냐는 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음악 관련 행사 및 제작을 기획하는 문화협회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3. 영화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영화의 외형적 발전과 함께, 지역사회의 참여 및 문화다양성의 실현 등 도시의 내면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조건으로 인해 영화 창의도시는 브래드포드 지역이 유일하다.

1) 영화 기술의 개척지에서 현대적 영화 중심 도시로

브래드포드는 영국 잉글랜드에 위치한 도시로, 전체 인구 46만 7천명으로 영화가 도시 재생의 중심축이며, 도시의 영화유산을 도시 활성화에 이용해 지역성장을 꾀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다. 영화 전통과 유산을 단순히 유지·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해 새로운 영화문화를 창조하고 영화산업 개발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도시를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들은 여러 시대와 지역 문화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영화 촬영 및 제작의 중심지로 알리는 데 일조했고 이러한 브래드포드의 영화들은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2) 영화에 초점을 둔 창의산업 육성 지원

브래드포드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영화 산업 육성을 위해 영화 관련 분야 전반에 걸쳐 해당 시설·기관·행사·축제에 대한 지원 및 운영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 의회는 크게 ① 도시의 지역 행사와 축제, 영화의 출발지로서의 전통성, 타 도시와 차별된 관광산업의 육성, ②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기술력 및 문화수준의 향상, ③ 영화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빈곤계층의 삶의 질 향상 등 3가지

목표를 설정, 도시의 문화잠재력을 극대화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현재 창의산업 분야와 관련된 기업은 약 1천 5백 개에 이르며, 고용 인구는 5천명을 넘어선다.

3) 인적자원의 확보와 육성

인적 자원의 확보와 육성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들이 갖는 공통 과제 중 하나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 수준의 교육에서부터 미래 영화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재 양성까지 다양한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음식, 도시를 풍요롭게 요리하다

각 사회가 지닌 자연, 사회, 경제, 기술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음식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지역, 그리고 도시의 특성을 보여준다. 음식을 지역의 대표적인 자산으로 인식하고 키워나간 포파얀(콜롬비아)과 청두(중국)는 음식이 갖는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 우수한 자연조건과 역사적 전통유산

1,1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청두는 중국 쓰촨성 요리의 발상지이다. 2천 명이 넘는 마스터 쉐프(Master Chef)와 300여명의 국가대표 급 요리사 등 미식도시로서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생태학적 환경, 오래된 역사를 바탕으로 한 도시유산, 안정된 경제성장, 통합을 지향하는 도시문화, 효율적인 도시경영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미식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다양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을 바탕으로 쓰촨성은 중국 전체 작물 생산량의 1/3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식자재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심도시인 청두는 5개 기본 맛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향미를 선보이고, 23개의 혼합된 맛과 6천여 종류의 음식을 창출해낸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우주의 기본 생성원리와 함께 각 요소의 유일무이함을 지키면서 조화를 추구하는 중국인의 삶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 2천여 년에 걸친 여섯 번의 민족 대이동의 역사는 다양한 조리기술의 발달과 관련 학교설립에 기여하는 등 청두에 미식문화의 발전을 가져왔다.

2) 시민 참여와 다양한 축제

청두는 다양한 생태환경, 인종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다. 정부와 민간 기관의 미식관련 행사들이 연중 실시되고 있으며, 실제 도시의 역사와 함께 발전된 전통 있는 행사도 많다. 대표적인 예로 꽃 축제는 천여 년 전 타오이즘의 창시자인 장링의 탄생일에 맞추어 처음 개최하였으며, 행사 주제가 꽃에서 미식으로 전환되면서 청두음식축제로 가장 주목을 받는 행사가 되었고,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청두세계음식투어축제로 진화했다. 그밖에도 청두는 다양한 요리대회, 음식평가회, 국내외 케이터링 축제 등을 개최해 국제적 조류에 발맞추고 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가입으로 현재 다양한 국제포럼, 전시 등을 기획 중인 청두는 이 같은 국제협력을 토대로 향후 미식산업이 도시에 더욱 중요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도시의 전통과 현대, 공예로 만나다

“공예는 오랜 시간 인류의 전통 지식과 기술의 창조적 표현의 보고이다. 공예품은 삶을 풍요롭게 하며 수많은 사람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1997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공예회의에서 밝힌 공예의 개념이다.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빈곤 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예의 기능과 가능성을 높이 사고 있다.

아메리칸 인디언의 긴 역사적 전통을 가진 미국 뉴멕시코 주의 주도(州都)인 산타페는 인구 7만 명의 작은 도시지만 6,500명이 넘는 예술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150개의 화랑과 8개의 박물관, 국제적 명성의 산타페오페라를 비롯한 많은 공연예술단체들이 밀집해 있다.

1) 문화와 통상의 합류지

오래 전 산타페는 인디언과 멕시코 원주민들의 물품교환 장소였으며, 이후 스페인, 멕시코 식민지 시기에는 엘 까미노 레알 무역로의 최북단 거점지역이었다. 이 무역로를 통해 멕시코시티로부터 외국상품이 전해졌다. 산타페는 ′문화와 통상이 합류 지역′이라는 오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현재 공예산업은 자기, 직물, 바구니, 보석, 목공예 등으로 특화되었고, 지역사회의 전통으로 도시에 특별함을 부여하는 문화자산으로 발전해왔다.

2) 창의산업, 산타페 경제발전의 최우선 동력

산타페는 미국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건축가, 작가, 예술가들의 밀집도가 높다. 노동자 6명 가운데 1명이 창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예술과 문화산업은 산타페 경제의 주요한 동력으로서 일자리 창출, 자본유치, 세입 창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예술 판매금액은 연간 약 2억 달러로 추산되며 미국에서 뉴욕 다음으로 큰 예술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산타페 시는 예술과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산업을 경제발전의 최우선 동력으로 간주하고 예술과 문화프로그램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예산업은 산타페의 핵심 문화산업으로 다양한 시장과 예술센터, 박물관, 화랑 등을 통한 예술가와 공예가들에게 시장접근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창의산업에 대한 긍지가 바탕이 된 시의 정책적 노력은 지역 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열린 의견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6. 창의적 디자인, 도시의 삶을 디자인하다

'디자인(Design)'이라는 용어는 '지시하다·표현하다·성취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데시그나레(designare)'에서 유래한다. 기존의 제품, 시각, 패션 등에 국한되어 있던 디자인의 영역이 최근의 추세는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과 기획'이라는 확장된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디자인 도시는 타 분야에 비해 많은 7개 도시로 디자인 분야 자체의 보편성과 적용의 다양성과 디자인이 도시발전에 뚜렷하게 기여하기 때문일 것이다.

1) 다양성의 가치와 풍부한 다문화성

캐나다 퀘벡주(州)에 위치한 몬트리올은 인구 160만 명의,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다. 150개 이상의 다양한 문화와 인종 구성을 배경으로 하는 이민자들의 도시인 몬트리올은 도시 전반에 내재된 다양성의 가치와 풍부한 다문화성에 힘입어 창의적 인력과 디자인 자산을 보유하기에 적합한 환경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환경 자원에 더해 '디자인 인 퀘벡(Design in Qu´ebec)'으로 대표되는 디자인 육성 정책으로 몬트리올은 7억 5천만 달러(약 8천3백억 원)의 경제적 이익과 함

께 2만 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다.

2) 디자인이 곧 시민의 삶

몬트리올이 디자인 도시로 국제무대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67년 '세계박람회(World's Fair)'를 개최하면서부터이다. 몬트리올은 수많은 디자이너, 수준 높은 교육기관, 저명한 박람회 센터 등을 보유하고 도시 내 창의적인 디자인과 건축물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소수 엘리트만이 향유하는 디자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디자인 도시의 매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

특히 몬트리올은 쾌적한 삶의 환경이자, 시민들의 기본적인 가치로서 디자인을 강조하며 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몬트리올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디자인 부문 지식 및 노하우를 세계로 전파하고자 노력해 왔다.

Ⅲ. 나오는 글

"창의도시는 시민들에게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활동하게 하는 유기체로서의 도시"라는 창의도시 전문가 찰스 랜드리의 해석은 '도시(민)의 창의성'을 추구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외형적 발전과 함께, 지역사회의 참여 및 문화다양성의 실현 등 도시의 내면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고, 이들의 공통점은 풍부한 자산을 정부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잘 일구어내고, 기반을 종합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 있다.

전통을 생활로, 또 산업으로, 그리고 다시 창의성으로 꽃피워낸 역량 있는 도시들의 사례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본 전제조건으로 하여 대학 및 비정부단체들의 활약을 통해 풍부하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전통, 유산을 단순히 유지·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해 새로운 창조산업 개발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도시들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들이 갖는 공통 과제 중 하나인 인적 자원의 확보와 육성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 수준의 교육에서부터 미래를 이끌어 갈 전문 인재 양성까지 다양한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창의도시는 경제발전에 있어 예술과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산업을 경제발전의 최우선 동력으로 간주하고 있고, 예술과 문화프로그램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쾌적한 삶의 환경이자, 시민들의 기본적인 가치로서 문화를 강조하며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민속과 공예 창조도시의 특징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거점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민족과의 교류로 독특한 전통 관습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었고, 전통문화를 이용한 생태관광과 연계시켜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창의도시에는 조정 및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실무그룹과 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고,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의 협력 아래 위원회를 신설하고 도시의 성장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시민-전문가 간 쌍방향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있었다.

위의 여러 창의도시의 교훈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정책이나 목표 또한 여럿이라는 점이다. 한 가지 모델만이 아닌, 같은 모델이라도 다른 시공간 속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아직 과거의 경험이 없고, 도시나 산업, 문화와 관련해 일반적인 관료적 정책 모델을 단순히 형식만 바꾸어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의도시 사업의 특징은 이것들이 공공/민간, 공식/비공식, 영리/비영리 등 전통적인 경계를 가로질러 존재한다는 점이다.

위의 교훈으로부터 현재 제주지역의 창의도시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창의적·문화적 활동가와 생산물 그리고 창의적인 소비자를 어떻게 하면 실제로 지원하고 뒷받침할 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도시 계획은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로의 관점을 수정하고, 더 많은 관심을 문화 활동과 그 장단점을 분석하는 과정, 이러한 활동을 어떻게 뒷받침할 지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은 새로운 세대의 창의도시를 갖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문화체육관광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포럼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2009.

박광순, 『창의도시의 이해』, 대한민국학술원.

박은실, 『국내창조도시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국토연구원, 2008.
(http://www.unesco.or.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재생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임상오, 『창의지역의 해외 성공 사례 연구』, 상지대학교.

창의도시 제주의 현실과 과제

김 석 윤
공공정책연구소 나눔 대표

〈차 례〉

Ⅰ. **들어가는 글**

Ⅱ. **제주의 창의적 여건**
1. 역사문화적 특징
2. 문화행정 시스템
3. 문화기반시설
4. IT · BT시설/창의교육
5. 창의적 인력 현황
6. 창의적 프로그램 및 활동현황
7. 창의산업

Ⅲ. **나오는 글**

Ⅰ. 들어가는 글

유엔은 2007년에 발간한『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인구가 2050년경에는 전체 인구 중 70%에 해당하는 64억여 명이 도시에서 생활하리라 예측했다. 이처럼 도시로의 인구 집중현상은 사회·경제·문화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새로운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도시 개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도시 구성원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 관용과 문화다양성을 보장하는 유연한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도시의 문화정체성을 위해서는 다양함 속에서 공통분모를 새롭게 정착시키고 도시의 특성을 가려내어 도시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문화의 중요성과 도시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도시의 창의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도시화율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공간의 재구조화는 필연적이다. 제주 경제의 주요 동력원 가운데 하나인 관광 등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운용되는 현실에서 도시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관광정책 또한 생활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무형의 가치인 전통적 상상력을 오늘날의 상상력과 결합해 유형의 자산으로 치환하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인재를 흡수하고 지역의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내어 지역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지역으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키는 기업체의 유치, 일자리 창출,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요소들만으로는 안 된다. 창의적인 인재는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먼저 찾기보다는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지역과 기업을 직업 선택의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육, 자연환경, 휴식, 생활문화의 다양성 등이 갖추어진 도시를 선호한다. 리처드 플로리다[2] 교수가 지적하는 3T(Technology, Talent, Tolerance)를 지니고 있는 도시에 창의성은 넘치고 창의계급이 정착하게 된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헤미안 지수를 높이는 등 창의적 삶을 위한 환경조성이 각종 정책의 우선순위에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2) 토론토대학교수,「창조계급의 부상(The Rise of the Creative Clacc)」의 출간 이후 글로벌 경제가 창조성에 의해 어떻게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진행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준비하면서 가입에만 목적을 줄 것이 아니라 제주의 창의지수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자율성에 기초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최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제주가 창의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서부터 출발하여 제주의 역사·문화적 전통과 창의적 환경이 구축된 정도를 가늠해보고 미진한 부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서 제주지역 문화·환경 진맥을 통하여 제주가 갖는 강점은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으며, 취약한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적이지만 창의도시를 위한 정책제언을 함으로써 향후 도시재생이나 문화도시 조성,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제반 논의가 활성화되고, 제주형 창의 담론과 부문별 창의모형 및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Ⅱ. 제주의 창의적 여건

1. 역사문화적 특징

제주의 자연 마을은 등고선의 높이에 따라 서로 색다른 문화유산을 남겨주고 있다. 이처럼 등고선에 의해 구분되는 제주의 전통문화는 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문화권과 중산간 부락에 나타나는 농경과 목축문화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의 작은 공동체는 섬이라는 큰 공동체의 묶음 속에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자리를 잡고 있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독창적인 전통문화를 생성·발전시켜왔다.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제주지역에서도 경제성장과 근대화의 논리가 제주 사회를 지배하면서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이 오늘날의 재해석과 보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도 전에 하나둘씩 우리 주변을 떠나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갔다.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해오던 마을의 문화원형질은 생존을 위한 삶의 방식이 달라짐으로써 차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나마 관광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외부문화의 유입에 따르는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통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면서 문화원형에 대한 보존 및 개발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해방을 전후하여 문화예술 활동은 조선시대 때는 주로 한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제시대 미술 분야는 일본에서 공부했던 유학파 출신들이 활동했으며, 음악분야는 1940년대 초반 도내 초등학교에 관악대가 만들어져 활동했다. 해방을 맞이하여 문학은 동인지를 출간하기도 했으나 정치적 혼란기여서 창간호가 종간호가 되기도 했다. 이 시기의 음악활동은 학교 음악교사들에 의한 교육활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8·15해방과 4·3을 지나 한국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기존의 문화예술계 전통과는 다른 제주다운 질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명암이 엇갈렸다.

현대사의 풍랑은 기존의 작품 경향과는 또 다른 예술창작 집단을 낳았다. 문학 분야에서 4·3을 소재로 한 제주출신 작가의 작품이 처음으로 선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작품이 창작되었다.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제주가 갖는 문화적 동질성과 특성은 첫째, '탐라라는 고대국가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둘째, 외세의 침탈과정에서 주체적 시각을 유지하게 된다. 몽골의 침략과 제주 직접 통치는 몽골과 고려조정, 심지어 삼별초까지 제주도민의 시각에서는 수탈자일 뿐이라는 관점을 낳았다. 조선시대에는 탐관오리의 수탈, 출륙금지에 따른 문화적 고립화, 신당(神堂) 철폐 등이 있었지만 독특하고 풍부한 제주의 문화자산을 절단할 수는 없었다. 셋째, 4·3의 기억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섬 이외의 것들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낳기도 했다. 넷째,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문화예술의 다양성이 제주지역으로 유입되고 착종되는 과정에서 제주문화예술계는 새로운 틀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제주예술의 근간은 전통 계승과 이식된 현대적 예술 양식이 섞이고 경쟁하면서 발전적 방안을 찾고 있다.

2. 문화행정 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단일 행정계층구조로, 자치권이 없는 2개의 행정시로 통합된 단층구조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치입법권이 없는 행정시로 규정되어 예산 편성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정책추진과 진흥을 위한 시스템은 본청의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등 공식 행정조직과 제주

특별자치도 진흥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는 문화예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및 제주영상위원회가 상호 협력적 관계와 경합에 의해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개편된 행정계층구조의 장점은 통일된 문화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읍·면·동까지 일관되게 문화정책의 내용이 관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분적인 성과로는 축제 등 종전 4개 시·군의 중복되는 형태의 문화예술 행위에 대한 조정과 통합을 유도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구조는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의 시행 등 균형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제도의 단순화는 긍정적이지만 예술은 상상력을 주요 에너지로 미적 작품 활동을 추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이 예술 활동을 획일화, 규범화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종전의 행정 시스템은 4개 시·군이 상호 경합에 의해 정책을 생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중복되는 정책의 남발도 있지만 도민사회의 수요예측에 기초하여 집행하는 밀착된 행정 구조라는 장점도 지닌다. 정책에 따라서는 독자적 사업 편성을 가능케 함으로써 제주지역에서의 문화정책 내용을 다양화하는데 기여했던 측면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행정 시스템의 주요 과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개방화된 사회를 추구하면서 다양성의 확보와 정체성의 유지,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정책 집행과 향유자 중심의 욕구를 적절하게 융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바꿔 말하면 높은 수준의 행정 전문성과 사회적 합의시스템이 갖춰져야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큰 틀에서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문화예술 조직과 제주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창의적인 운영프로그램을 제시해야한다.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인 법 제도의 측면에서는 도내에는 20여 개의 문화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유형별로는 문화진흥 관련 조례가 5개,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조례가 5개, 기타 예술 공연과 축제육성, 문화유산 관련 조례가 있다.

3. 문화기반시설

문화기반시설에는 공공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이 있다. 이들 시설은 정부가 최소 수준의 확충 대상으로 삼은 시설이다. 현재 제주지역 문화기반 시설은 공공도서관 25개(특수 3개), 박물관 및 미술관 52개, 문화의 집 21개, 문

예회관 2개, 문화원 2개소가 있다. '2009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의 전국현황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문화기반시설 1,741개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지역 공공도서관은 전국 도서관 644개의 3.4%, 박물관 및 미술관은 전국 707개 가운데 7.4%, 문예회관은 167개 가운데 1.2%를 점유하고 있다. 문화의 집은 전국 170개 문화의 집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박물관의 경우에 사립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사료의 전시기능과 함께 부차적으로 영업이익을 위한 박물관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제주섬이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지역주민의 관람비율보다는 순환되는 관람객(관광객)이 다수를 차지하며, 주제의 명확성과 함께 적극적 홍보도 박물관 이용객의 증가에 한몫을 거들고 있다.

박물관 소장 자료 현황은 공립 박물관의 경우 고고학과 민속학, 교육 등 제주지역의 인문환경을 중심하거나 자연환경을 핵심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다. 반면 사립박물관의 특성은 지역적 특색을 중심 소재로 전시하기 보다는 대중의 흥미와 사료적 가치를 접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주지역 도서관의 총 소장 도서는 총 1,481,709권이며,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립도서관이 보유한 도서는 542,590권,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도서관의 총 도서보유량 913,433권으로 집계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마을마다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문고)은 총 175개소(제주시 104개, 서귀포시 71개)가 있다.

현재 도서관 관리 기관은 제주도, 행정시, 교육청이다. 한라도서관은 제주지역의 대표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정책 및 기획조정 기능이 부재한 형편이다. 제주도는 도서관 정책 및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도서관 정책담당 신설을 검토 중이며, 지역 대표도서관인 한라도서관에 도서관 관리본부를 신설하여 각종 자료의 통합관리와 배분·보존, 장·단기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연시설 현황은 영업시설과 예술공연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연법」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지역의 공연장을 구분해 보면 1천석 이상 종합공연장은 1곳,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의 일반공연장은 9개(추진 중 1개), 300석 미만 소공연장은 4개(추진 중 1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분포의 측면에서는 대부분 제주시지역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제주지역에는 21개의 문화의 집과 읍·면·동 자치기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주민자치센터가 있다. 문화의 집은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공간'의 취지로 만들어졌다. 운영 주체의 측면에서는 동사무소이거

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마을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문화센터의 운영 주체 또한 이와 유사한 행태를 보여준다. 때문에 운영되는 프로그램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교양프로그램이나 취미프로그램을 중심이다. 운영 주체인 읍·면·동은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지역적 특수성을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회로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연중 사업의 형태로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창의적인 전문 인력이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4. IT・BT시설과 창의교육

제주지역은 4면이 바다이면서 해양대국을 향한 전진기지로서 한・중・일 3국의 중심에 솟아있다.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자연유산과 풍부한 신화가 널려있다. 자연환경의 영향 때문에 전통적으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강세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다. 관광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면서 현재는 서비스산업 비중이 79% 수준으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관련 기관으로는 하이테크진흥원과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이 있다. 하이테크진흥원은 건강·뷰티 생물 산업 육성의 종합 거점기관으로 산업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이다. 경쟁력 있는 미래지식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 분야는 건강·뷰티 생물 산업의 기획 및 육성,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지역 생물 산업 인프라의 구축, 지역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제주 전략산업기획단, 제주바이오사이언스파크, 제주 종 다양성 연구소, 지역연고산업 진흥 사업단을 두고 있다.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은 세계정보통신 선도 지역 육성을 목표로 청정 농수축산 관광산업의 유비쿼터스 체계 마련, 통방송사업의 부가가치화,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유치, 신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해 거점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 인프라는 수도권 기업 유치 및 기반조성, 휴양형 첨단과학기술단지, 벤처촉진지구를 연계한 연구기반조성, 지식산업지원 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재된 지역 내 지식산업 기관과의 융합기술 사업 전개 등이 있다. 투입 인프라의 측면에서는 제주벤처마루와 모바일 통합 컨버전스센터 등 핵심 인프라 조성, 대학과 기업이 연계하여 신기술 프로젝트를 통한 인력양성제도 시행, 지역 내 고급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공용활용제 도입 등이 있다. 이러한 실행 과정을 거쳐 한・중・일 동북아 뉴미디어 중심지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제주 최첨단산업의 산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이테크 진흥원과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이 통합된 제주테크노파크(TP)가 설립됐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지역전략산업, 특화산업, 광역경제권선도사업 및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청정자연과 함께 하는 쾌적한 IT·BT 관련 연구 및 기업환경의 최적지로서 관련 사업을 집중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 중에 있다. 이 단지의 특성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계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의 최적지, 아열대성 기후로 약 7,000여 종 생물종을 보유한 바이오 연구개발 최적지, 전파청정지역 테스트베드 구축, 해외과학단지와 교류를 통한 세계화/국제화 기업환경제공단지, 제주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자원의 디지털 문화 콘텐츠 개발의 최적지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제주지역에는 1개의 국립대학과 4개의 사립대학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각 대학의 창의 관련 학과 및 학생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대학교의 경우 13개 관련 학과 및 학부에 총528명의 입학정원을 두고 있다. 이들은 자연과학대학에 123명, 공과대학에 338명, 예술학부 72명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전체 입학정원 2,338명의 22.6%에 해당한다.

제주관광대학교는 창의 관련 학과에서 260명의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수업 연한 2년의 학과로서 전체 입학정원 1,255명의 21%에 해당한다. 학과는 6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제주산업정보대학교의 경우 전체 입학정원 1,614명 가운데 창의관련 5개 학과에 240명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전체 입학정원에서 15%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한라대학교는 전체 입학정원 1,787명 가운데 330명이 창의관련 8개 학과에 입학하고 있다. 전체입학정원에서 18%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적은 구성비를 보여주는 대학은 탐라대학교로서 1개의 건축디자인과에 12명의 입학 정원을 두고 있다.

도내 대학의 창의 관련 학과의 특징은 제주대학을 제외하고 기초학문 분야에 관련학과가 전무한 실정이며, 나머지 4개 대학의 경우는 실용성을 중심으로 학과가 편성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건축, 디자인학과가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5. 창의적 인력 현황

제주도내 예술 단체의 인적 재생산구조는 음악, 미술, 영상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학

교육과는 무관한 재생산 구조 속에서 예술가 그룹이 형성되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생활환경, 창작환경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외에서 활동 중이던 제주인이나 혹은 다른 지역 출신예술가들이 활동 공간을 제주지역으로 옮기는 현상이 자주 발견되는 것이 특징적 요소이다.

예술 활동 형태도 전문적인 훈련의 과정을 거친 예술가 그룹, 취미활동의 동호인 그룹, 전문 예술 활동 지향적인 동호인 그룹, 법인단체, 미등록 단체 등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 지역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남지역과 산북 지역이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단체분포에 따른 구성비를 보면 제주시가 평균 87.8%를 차지하고 서귀포시는 11.8%이다. 주민등록상의 제주시 인구가 제주도 전체 인구의 72.3%인 현실과 비교해도 유난히 제주시 권역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제주문화예술단체 현황

구 분	예술단체		행정구역에 따른 단체수		비고
	단체수(개)	회원수(명)	제주시(개)	서귀포시(개)	
문 학	30	1,135	29	1	
미 술	34	1,500	31	2	서울 1개
사 진	29	2,930	24	5	
서 예	30	-	24	6	
건 축	1	30	1	-	
음 악	76	2,951	71	5	
연 극	15	370	12	3	
무 용	15	302	13	2	
연 예	1	126	1	-	
국 악	21	735	17	4	
문 화	4	-	3	1	
영 화	2	400	2	-	
도·시립예술단	5	-	3	2	
합 계	263(100%)	10,479	231(87.8%)	31(11.8%)	1(0.4%)

자료 : 『2010문화・관광・교통・스포츠현황』 참조 재구성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우선 서귀포시의 경우 예술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인구(인적자원)의 협소성으로 인해 인적・물적 재생산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도 작용한다. 섬

은 동서남북 어떤 길로 가든 일정한 방향만 유지하면 원래의 위치로 환원되는 구조, 제주지역이 1시간 내외의 생활권역이라는 점, 주거공간과 활동공간의 일치되는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통문화와 관련해서는 국가지정 45개, 도지정문화재 174개 종목 5개의 보유단체가 있다. 이 가운데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는 명예보유자 3명, 보유자 16명, 전수조교 13명, 이수생 12명, 전수장학생 26명이 활동하고 있다.

통계청의 표준 산업분류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창의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자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의산업에 포함되는 인적자원은 3,983개 사업장에 24,68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서비스업 관련이 861개 사업장에 7,491명, 오락 및 문화 관련이 1,589개 사업장에 9,095명이 종사하고 있다. 나머지 1,533개 사업장 8,100명은 기타 오락 및 문화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단일직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직업군은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관련 산업군으로서 1,18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의 4.8%에 해당한다. 가장 높은 비율의 사업체수는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직종으로서 138개(3.4%)를 보유하고 있다. 개별 사업장의 측면에서는 종사자수를 사업체수로 나눌 경우 평균 10명을 넘는 사업장은 많지 않으며 5명 미만의 사업장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표 2〉 제주지역 창의산업 종사자 현황

산 업 별	2006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남자(명)	여자(명)
사업서비스업(72,74,75)	861	7,491	4,436	3,05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52	361	304	57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2	-	-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2	…	…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35	288	246	4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35	288	246	42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4	-	-	-
자료 처리업	3	14	6	8
컴퓨터시설 관리업	1	…	…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10	-	-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10	44	40	4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1	-	-	-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1	…	…	…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33	1,123	952	171

산 업 별	2006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남자(명)	여자(명)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106	479	405	7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7	644	547	97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	274	249	25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13	166	145	21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	108	104	4
광고업	39	106	71	35
광고 대행업	13	30	20	10
기타 광고업	26	76	51	25
전문 디자인업	21	125	84	41
전문 디자인업	21	125	84	4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8	325	199	126
사진촬영 및 처리업	134	283	168	115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42	32	1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87~88)	1,589	9,095	4,726	4,368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56	995	643	352
영화 산업	21	141	75	66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4	19	16	3
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	17	122	59	63
방송업	10	474	400	74
공중파 방송업	4	328	295	33
유선 및 위성 방송업	6	146	105	41
공연산업	25	380	168	212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8	120	70	50
공연단체	12	243	88	155
자영 예술가	2	…	…	…
공연관련 산업	3	9	8	1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1,533	8,100	4,083	4,015
뉴스 제공업	2	-	-	-
뉴스 제공업	2	…	…	…
도서관,기록보존소,박물관및기타문화관련 산업	132	1,185	579	606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78	326	145	181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33	389	172	217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21	470	262	208
합 계	3,983	24,686	10,245	11,435

자료 : 통계청 2006년표준산업분류표 참조 재구성

6. 창의적 프로그램 및 활동현황

문화예술분야에서는 240여 개의 단체에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문학 분야 단행본발행은 총 47권, 문예지·동인지 발간 15권, 등단이 32명, 7명이 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연간 23회의 문학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미술 분야에서는 제주출신 작가의 전시 횟수가 도내외에서 총 223회(수상 10회), 서예 분야에서는 71회(수상 9회), 사진 분야에서는 89회(수상 4회)의 전시 및 수상을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음악분야는 545회(수상 14회)의 활동 현황을 알 수 있으며, 국악은 100회(수상 9회), 연극분야는 162회(수상 3회), 무용분야는 74회(수상 3회)에 걸쳐서 창작활동을 전개해왔다.

제주도내에는 60여 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제주도내에서 추진되는 대부분의 축제의 발생 배경이나 목적은 관광축제, 문화관광자원화, 관광상품화, 봄철 관광진흥에 두고 있다. 축제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경제적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실현 목표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설정하고 있다.

개최 지역은 제주시 지역이 6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절적 측면에서는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지만 가을철에 개최되는 빈도수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제주도 축제의 유형별 분류(2009년)

(단위 : 회)

개최지역		계절별 분류			
구 분	축제수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제주시	41	8	13	10	10
서귀포시	18	2	4	4	8
기타	2	-	-	1	1
계	61	10	17	15	19

자료 : 제주문화예술재단 내부자료 참조 재구성

관광분야에서는 2009 아시아·태평양 문화관광 창의포럼을 개최하였다. 前 UNWTO사무국장 및 관계자와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9개국의 민간·공공 및 비영리분야 대표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여기에 일반인으로는 제주도내 관광 및 문화예술단체, 기자단 및 제주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에서 개최되는 200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포럼이었다. 또한 세계 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당면한 경제현안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의 돌파구로서 창의산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문화·관광산업에 접목시키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개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포럼은 창의를 통한 문화와 관광영역에서의 도전과 과제를 〈제주선언문〉으로 채택하였다.

제주도내에는 국제회의를 기획하는 사업체는 10개소이며 국제회의 시설은 1개소가 있다. 이 가운데 제주시 지역은 제주그랜드 호텔(900명), 라마다 프라자(1,200명), 제주오리엔탈(1,100명), 제주 KAL호텔(1,200명), 더 호텔(600명), 제주퍼시픽(150명), 중소기업지원센터(1000명),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300명)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450명)이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개최된 국내외 회의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제주지역에서 개최된 국·내외 회의 개최 현황

(단위 : 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국제기준	3	4	8	6	13	22	33	53
국내기준	21	19	32	53	41	42	79	105
전 국	292	294	296	298	302	306	420	456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 및 국내회의 개최 건수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제주관광공사가 주관한 '2010 제주국제그린마이스위크'(JEJU International Green Mice Week 2010)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처럼 마이스(MICE)산업 등의 영향으로 회의 개최 빈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인 이벤트로는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2009년 한 해 동안 총 12차례의 행사가 개최되었다. 문화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델픽대회를 비롯하여 국제합창제(60개 팀 : 국외 9, 도외 23, 도내 28), 국제관악제(8개국 31개팀 2,400여 명) 등 3개의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되었다. 스포츠행사는 국제마라톤 등 다양한 분야에서 9개 종목에 걸쳐 행사가 진행되었다.

7. 창의산업

2008년 7월 동북아 최고의 휴양관광지로 도약하려는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광진흥 공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되었다. 2009년 제주관광객 600만명 외래 관광객 6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정책을 선도 지원하고 있다.

관련된 주요사업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서 테마파티 상품 28개, 팀 빌딩 상품 38개, 이벤트 공연상품 15개 개발(총 81개), 개발된 상품이 MICE 관련 업계에 보급되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2010년에 이어 제주 Int'l Green MICE Week 매년 주기적으로 제주형 MICE컨퍼런스, 전시, 문화체험행사,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하나의 이벤트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MICE 전문 인력양성 사업을 위해 MICE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MICE 연관 업체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MICE 현장 운영 인력지원단 체계를 마련하여 MICE 현장 운영 인력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하이테크 관련 산업으로는 '전기의 생산, 운반, 소비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을 목표로 스마트 그리드체계 설계 및 스마트 그리드 요소개발 및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전력저장장치를 실증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자동자 충전 인프라, 스마트미터 연계 등을 위하여 6,000가구 규모의 실증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은 1차 산업 기반 IT 테스트베드, 통방융합테스트베드 조성, 관광융합형 테스트베드 조성, 텔레 메틱스 기반 테스트베드 조성, 그린 IT테스트베드 조성, 인재양성사업, 사회 인프라 조성 테스트베드를 위해 34개 사업에 2,240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Ⅲ. 나오는 글

지속 가능한 삶의 내용과 형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의도시에 대한 호기심과 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쏟아지고 있다. 창의성을 발판으로 창의문화, 창

의관광, 창의경제, 심지어 창의계급까지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 모를 정도로 관심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봤듯이 단순히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창의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다고 해서 저절로 유능한 인재가 지역으로 몰려들고 지역주민의 삶의 방식이 외부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하이테크산업이 육성되리라는 기대는 참으로 안이한 생각이다. 그렇다고 창의도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더욱 아니다.

제주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창의관련 기반시설과 활동의 성과는 그 어느 지역 못지않게 다양하다. 그리고 그 노력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 이제 다양한 성과들, 다양한 계획들을 차례차례 순서에 맞게 조립하여 하나의 완성된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을 뿐이다.

제주가 갖고 있는 장점은 첫째, 탐라에서 비롯되어 섬의 고립성이 한층 풍성한 질감을 키워왔고, 역사적 질곡을 거치면서 숙성된 깊은 내면의 세계가 깃든 제주문화, 제주의 정체성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정도로 아름다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자연환경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고 셋째,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 다양한 문화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가 갖고 있는 약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으로 외부세력에 의한 침탈에 의해 섬 밖의 세력에 대해서 일정 정도 거리를 두려는 태도가 형성되어 있어 창의의 기본 요소인 관용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어 관광산업이 성패에 따라 지역경제가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 셋째, 행정구조가 단일광역체제로 편제되어 있어 행정시의 예산 편성권한이 없으므로 독창적인 도시정책을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넷째, 문화 및 창의 관련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생활 속에서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수는 협소하다. 교육제도를 창의 지향적으로 바꿔 나가야하는 것이 과제이다.

제주가 갖는 기회의 요소로는 다음의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단일광역체제에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둘째, 제주도의 정책방향이 마이스(MICE)산업, 탐라문화, 전통문화의 콘텐츠화, IT·BT에 대해 이미 일정정도 정책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위협 요소는 첫째, 창의도시를 지향하는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와의 경합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주의 독창적인 창의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창의도시 추진 주체 가운데 행정 주체가 행정시인가 아니면 광역자치

단체인가 하는 부분에서 애매모호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행정 및 주민의 창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결국 창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 의지를 포함한 정책방향이 창의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관련 사업을 또한 그 방향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단기적인 접근 전략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미래의 제주자원의 효용성 극대화 및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창의도시는 단기간의 정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낳을 수는 없으며, 해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정책이 추진되었을 때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주의 창의도시를 위한 과제와 단계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과제가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진 단계는 의제의 설정과 확고한 정책의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다음으로 산업구조, 인적자원 현황, 경쟁 관계에 있는 도시 실태 등 기초적인 데이터 수집 분석과정을 거쳐 제주의 현실과 문제를 진단하고 제주에 적합한 제주형 창의도시 모형을 설정해야 한다. 다음 단계로는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한 발상의 전환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교육을 통한 전승과 활용의 방안이 마련해서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가 명료해야 한다. 창의도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가능하지만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갈 수는 없다. 제주의 정체성과 현실적인 여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해야 한다. 공예와 민속을 놓고 보더라도 공예가 중심이며, 공예 가운데 제주의 문화정체성을 표출하는 중요인자, 도민적 공감대와 차별성을 담아낼 수 있는 요소를 검출해야 한다. 제주인의 삶이 돌집에서 태어나 돌집으로 돌아가듯이 돌과 돌 문화가 제주인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면 제주 돌의 지질학적 특성, 제주 돌의 미적 가치, 산업적 활용방안, 생활 속의 돌, 전통문화와 돌 등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주체의 문제(행정 주체의 문제)는 당연히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창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은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신청 과정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시민과 시민단체의 협력적 관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창의도시는 성과를 위한 창의도시만을 낳을 따름이다.

추진 체계의 측면에서 행정과 전문가 중심의 그룹과 시민운동 단체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큰 틀로서 '창의도시 추진협의회의'(가칭)가 있고 그 밑에 구체적인 연구와 사료조사, 사업기획 등을 담당하는 기구와 창의도시를 위해 자발적인 의

견수용과 시민운동을 이끌어나갈 창의도시 시민위원회 형태의 기구가 서로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제도화 방안은 사업의 성격이 일회적인 사업이 아니라 창의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의지의 표출임과 동시에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엮어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 정비이다. 이 제도를 통해서 행정 내부에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담당 또는 부서를 만들어 행정과 시민, 전문가 그룹 사이에서 소통을 매개하고 행정 내부의 관련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문제는 일반화된 학과의 학생 수를 늘리는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핵심 주제가 채택되면 핵심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교육기관(제도교육 또는 사회교육기관)을 만들고 교육기관을 통해서 주제를 전승시키는 전승관의 기능, 기술 습득을 통한 직업 창출의 기능, 다양한 콘텐츠로 분화·발전시키는 기능, 산업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서 관련된 직종의 인적 자원에 대한 재교육과 사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며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는 핵심 기구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자원화의 문제, 창의성을 지니고 있는 인재, 창의적인 산업기술,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수용하는 관용적 태도를 기본으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창의도시의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창의도시 신청을 위한 핵심 주제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해심 주제를 메인으로 연관된 산업에서 활용 가능성이 타진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핵심주제(자원)를 보존하고 전승시키는 차원에 머무른다면 애초의 목적이 많은 부분 삭감될 수밖에 없다. 제주의 산업구조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관광 산업화를 위한 방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핵심 주제 요소를 활용하는 공예품에서부터 축제화 프로그램, 핵심 주제를 활용하는 영상 미디어 콘텐츠 작업, 핵심 주제의 물리적 속성을 활용하는 방안, 핵심 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 관찰하는 기구 등이 필요하다. 특히 핵심 주제가 돌과 돌 문화와 연계되었을 경우에는 돌 문화공원을 중심으로 체험과 전승교육, 박물관기능, 사료조사기능 등이 입체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제주에 세계의 돌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집대성하여 연구하고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세계 돌 문화공원으로 변신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노다 구니히로, 정희정 역, 『창조도시 요코하마』, 도서출판 예경, 2009.

리처드플로리다, 이원호・이종호・서민철 역, 『도시와 창조계급』, 푸른길, 2008.

신동호외, 『축제로 만드는 창조도시』, 한울, 2009.

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제주문예연감』, 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제주특별자치도, 『2009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2010

제주특별자치도, 『201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현황』, 제주특별자치도, 2010.

지역문화정책의 현주소와 추진 방향

임 학 순
가톨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차 례〉

Ⅰ. **지역문화정책의 발전과 현주소**

Ⅱ. **지역문화정책의 환경변화와 미래 추진 방향**

1. 지역문화재단의 확대에 따른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2. 지역협력형 지원사업의 확대 및 지역분권 체계 구축
3. 창의적 환경 조성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체계 구축
4. 지역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문화자원의 콘텐츠 개발 활성화
5. 전문 문화경영체계 구축

Ⅲ. **지역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실현해야**

Ⅰ. 지역문화정책의 발전과 현주소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역사에 있어서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해방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에 한정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의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지역문화의 활성화사업은 주로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일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은 주로 문화재관리사업과 전통문화 보존에 한정된 것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문화가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무엇보다도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문화예술을 지역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문화정책에 대한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자치단체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으며, 이러한 자발성은 이전보다 지역문화정책을 다양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는 지역문화정책에 정치적 요인이 작용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 문화이벤트 행사가 대폭 늘어난 것은 이러한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는가 하는 점도 지역문화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문화정책의 지속성 또한 정치적 요인의 작용으로 단절되는 일도 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대한 철저한 고려 없이 다른 지역의 정책사례를 모방하여 추진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지역문화정책은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지만, 문화정책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역문화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문화분권 및 지역 협력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산업 및 문화예술교육과 같이 새로운 문화정책 영역을 개발하여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문화유산정책은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을 문화관광 및 문화마케팅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 또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12월에 문화, 체육, 관광을 포괄하는 지역문화발전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수요측면에서는 생활권 단위에 활력 넘치는 지역 문화환경을 조

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지역문화의 창의성을 진흥하여 지역문화를 특성화하고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문화정책이 확대됐지만, 현재 지역문화정책 현장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은 2003년에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에서 1.9%이던 것이 2005년에는 2.4%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 2.2%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의 문화 환경과 역량의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지역문화정책의 양적 확산보다 질적 혁신을 위한 전문추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정치의 문화정책에 대한 개입 또한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지역문화정책의 범위가 전통문화, 문화예술,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문화관광, 콘텐츠산업 등으로 확대되었지만, 이러한 영역들 간의 창조적 융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Ⅱ. 지역문화정책의 환경변화와 미래 추진 방향

1. 지역문화재단의 확대에 따른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정책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민간비영리조직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있는 데에는 지역문화재단이 문화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점이 있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직원들이 문화정책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예술위원회 운영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문화재단 모델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팔길이원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997년에 경기도에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된 이래 최근까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9년까지 강원, 제주,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전남 등 9개 기관이 추가로 설립되었으며, 2010년에도 경남, 충북, 전북 등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1998년에 강릉문화재단, 2001년에 부천문화재단이 설립된 이래 2009년까지 총 19개의 지

역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 및 지원역량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지역에 따라 문화공간 운영사업, 문화유산 조사연구 사업, 지역축제를 비롯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들은 초기에는 지역의 문화공간 운영에 초점을 둔 사업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지원기능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이 독립적인 비영리조직으로 전문성과 효과성 및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며, 창의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문화재단이 지역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 지역문화재단을 민간비영리조직으로 독립시킨 정당성의 근거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지역문화재단은 정치적 요인에 따른 영향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원기관으로서의 구실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에 따라 설립역사와 기능이 다르고, 재정규모가 다르며, 문화정책 수행역량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재단간의 소통 및 협력을 증진하여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문화공간 운영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기능뿐 아니라 지원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는 지원정책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협력과 조정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2. 지역협력형 지원사업의 확대 및 지역분권 체계 구축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역사에 있어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은 1980년대 중반, 지역문화 인프라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부터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체계였으나, 1990년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점차 지

방으로 분권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 사업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도하는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이 적극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지역 협력형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지역 협력형 사업이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및 배분의 주체가 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광역단위의 지역문화예술진흥조직이나 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직간접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원 사업을 의미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998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운영개선 보고'에 따라 1999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추진해오던 소규모 지역성 사업을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시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이관하였으며, 2009년과 2010년에는 지역 협력형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중앙 문예진흥 기금 지역 협력형 사업으로는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과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 협력형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 목적과 체계를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은 '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 체계를 갖추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정책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 체계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출 때, 적실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3. 창의적 환경 조성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체계 구축

앞으로 지역문화정책은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역문화정책이 문화의 확산에 초점을 둔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보다는 주체적인 문화 활동을 강조하는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이념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문화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술가와 지역주민의 소통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예술이 기존의 문화공간의 담을 넘어 학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마을, 가정 등 지역주민의 일상적 삶의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문화예술이 있는 곳으로 지역주민이 찾아오도록 하는 공급자 중심의 문화정책 패러다임이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문화예술이 찾아가게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패러다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이러한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학교와 사회적 취약계층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예술 강사 및 예술단체를 보내 학습자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장기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강사가 문화예술의 장르별 기법을 전수하는데 초점을 둔 문화강좌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2005년 이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에 확산하는데 기여한 바 크다. 그러나 아직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 역량은 취약하며, 문화예술교육자, 기획 관리자, 수혜기관의 담당자,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의 협력 네트워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정책은 양적인 확산에 초점을 두었던 초기 단계를 넘어 질적인 혁신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4. 지역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문화자원의 콘텐츠 개발 활성화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콘텐츠산업을 활용한 도시 활성화 전략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접근 전략은 기본적으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여 도시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 앞으로도 콘텐츠산업은 산업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창의적인 문화도시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콘텐츠산업은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정책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문화정책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콘텐츠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적 접근은 콘텐츠산업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콘텐츠산업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은 콘텐츠의 창작, 유통, 소비와 관련된 문화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창의성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전략은 지역특성에 따라 클러스터모델, 전시회 모

델, 문화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모델, 관광콘텐츠모델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모델을 중심으로 콘텐츠기반 지역 활성화 전략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콘텐츠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모델은 콘텐츠산업과 연관된 다양한 인력 및 기관이 집적되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 지역은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자원과 생태자원들을 문화관광 및 체험 콘텐츠로 개발하거나 콘텐츠창작 소재로 활용하는 전략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정책은 문화정책의 범주를 예술, 문화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 등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전문 문화경영체계 구축

우리나라에서 예술경영에 대한 실천적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문화정책 영역이 전통문화에서 문화예술로 확대되고, 정책대상이 예술가 창작분야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예술경영에 대한 이슈들이 하나둘씩 제기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980년대에 들어와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증가하고, 문화공간 및 문화예술단체 또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예술경영에 대한 실천적 관심은 공공문화기관 및 시설을 확대, 조성하는 단계를 넘어 전문경영과 성과를 고려하는 단계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지역문화공간의 운영평가에 대한 연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지역 문화 공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또한 이루어졌다. 예컨대, 2003년부터 '지역문화 행정인력 연수'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06년에는 지역문화기획 및 창작 분야의 민간 활동가 연수과정을 신설하였다. 2009년에는 인력양성 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예술경영 지원센터에 지역문화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여 국내 연수와 해외 연수로 이분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문화공간의 활용도는 매우 낮으며, 전문적인 예술경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역문화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축제인 경우에도 축제 기획 및 마케팅 역량 차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문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 이러한 문화경영체계의 문제는 비단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전문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 설치형' 정책보다는 '예술경영' 중심의 문화기반시설 정책이 추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공급자 중심적, 관료주의적, 획일적 경영체계를 탈피하여 고객 지향적, 시민 지향적, 전문화된 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역문화정책은 민간부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문화행정들은 권위주의적 행정 행태를 지양하고, 민간부문의 문화예술가 및 단체를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전문적이고 민주적인 문화행정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Ⅲ. 지역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실현해야

지역은 문화예술의 창작, 유통, 소비가 일어나는 문화예술 생태계의 중요한 터전이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이 생명력을 확보할 때, 문화예술의 생태계는 건강해질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지역주민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문화정책은 그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되든 궁극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의미가 있어야 한다. 지역문화는 전통문화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생성, 변화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동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 예술단체, 문화기반시설, 예술경영자, 문화실천가, 지역주민의 다양한 만남과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정책은 이러한 지역 문화예술의 생태계가 순환과 조절작용을 통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실현해야 한다. 이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 영역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실천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은 사회복지, 학교교육, 평생교육, 다문화가정,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자복지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노인복지관에서 문화예술은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

로 재구성되고 있다. 노인들은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창작하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또한 다문화사회의 소통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농어촌마을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2010년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향』은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해 초등, 중등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예술과 과학 통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문화예술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통해 학교교육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학교교육과 연계되어 창의성과 표현력 및 사회적 소통역량을 함양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문화정책은 지역에서 이러한 문화예술의 사회문화적,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게 발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은 또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창출하는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었지만, 서구 유럽의 도시들의 경우에는 이미 1980년대부터 문화예술을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지역 활성화 자원으로서의 문화예술의 범주에는 축제, 문화 공간, 콘텐츠산업, 문화관광, 공공미술, 문화유산, 예술프로그램, 유명 예술인, 문화예술작품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예술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의 문화유산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문화마케팅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감성체험 경제가 발전하면서 지역문화의 경제적 가치 창출의 힘 또한 확대되고 있다. 지역문화정책은 이러한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의 사회문화적, 교육적, 경제적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행복을 증진하며,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예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정책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친화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문화 친화적 지역정책이란 지역정책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인간주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 친화적 지역정책은 문화, 복지, 관광, 사업, 교육, 여가, 지역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문화친화적

인 지역발전 전략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문화인식을 제고해야 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주문화예술 인재(人才)육성과 인프라구축 방안

김 일 호
음악평론가/제주대학교 예술학부 강사

〈차 례〉

Ⅰ. **서 론**
1. 전제조건
2. 개요

Ⅱ. **본 론**
1. 인재육성의 필요성
1) 자생력(自生力 Ability)
2) 차별화(差別化 Differentiation)
2. 인프라 구축의 실천방안 및 기대효과
1) 제주 공립 예술고등학교 유치
2) 제주도내 대학에 관련학과 개설
3) 기대효과

Ⅲ. **결 론**

Ⅰ. 서 론

1. 전제조건

이 글은 다음의 전제하에 진행된다.

첫째, 외국과 국내 대도시의 모범 사례에 나타난 통계나 자료 등은 나열하지 않았다. 이는 통계를 통한 추측 속에 계량화되고 모형화된 그림에 압도되어 정책소심증과 상대적 박탈감이 유발되는 것을 우려함이며 더 나아가 타 지역을 모방한 획일적인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제주 문화예술의 구조적인 병폐를 있는 그대로 진단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주의 문화예술정책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새로운 기준과 모델로 학습되고 차별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여기에 제시된 실천방안은 학교에서의 전문 인재육성 방안에 국한된 것이며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재육성책과 인프라 구축 방안은 다루지 않았다.

셋째,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나 확보방안 등은 정책 실행 논의과정에서 다루어도 충분할 것이며 본서의 주목적은 아젠다(Agenda)에 대한 민감한 사회적 이슈(Issue)이다.

2. 개요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Daniel Pink)는 “팩트(Fact)가 넘쳐나는 시대에 팩트를 안다는 것 자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런 팩트들을 스토리로, 문맥으로 엮어내지 못하면 팩트는 증발된다”고 하였다. 아무리 제주자치도의 문화예술의 잠재성이 우수하다 한들 그 이야기들의 예술성과 감성을 통섭(Consilience 通涉)할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 한다면 21C 문화예술 전쟁터에서 제주는 녹슨 고철이나 다름없다. 또한 전문 인력수급에 있어 지나친 대도시 의존력과 개인의 친분과 좁은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는 창조적인 생산능력을 지닌 고급인력들을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주문화예술 인력수급의 구조적인 한계를 뛰어 넘는 자생력과 문화 차별화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뼈를 깎는 궤도수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천혜(天惠)의 제주는 문화예술의 형식화만 앙상하게 남아 필터 없는 오염된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서는 제주문화예술의 인프라 구축

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사회적 이슈(Issue)를 만들고 인재육성 정책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항목을 제시함으로써 제주문화예술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인재육성의 필요성

1) 자생력(自生力 Ability)

21C 각국의 화두는 문화예술 강국으로서의 관광대국의 실현이다. 이미 세계적인 문화예술 인프라를 지닌 유명 관광국가에서조차 자국문화의 우월성과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관광정책과 문화예술 마케팅 전략을 내세움으로써 문화관광 전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하여, 그 나라가 크든 작든 대륙이든 섬이든 예외 없이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21C의 글로벌 무기는 문화예술정책 마인드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도 제주는 아직도 대도시 모방 문화예술 정책의 틀을 벗지 못한 채 시대적 감각을 잃어 가고 있으며 사회적 문화욕구를 충족할 시스템 개발과 운용의 세련미를 더해 갈 인프라 구축의 핵심 인재들이 유실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더 나아가 정책기관의 진정성 없는 논의구조와 관련단체들의 집단이기주의는 오늘의 제주문화예술의 허약한 기반을 자초한 합작품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팩트는 넘쳐나는데 이 팩트들을 스토리로 엮어 낼 전문 인재 품귀현상을 보이는 곳이 섬, 제주의 모습이다.

제주에서 뭍 나들이에 들이는 사회적 비용은 만만치 않다. 그러므로 대도시에서 하나를 가져와서 여럿이 함께 보는 것이 하나를 보기 위해 여럿이 가는 것보다 경제적인 곳이 제주이다. 이처럼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짐으로써 야기되는 사회적 불편함은 적지 않다. 특히 대도시와의 공간 접촉이 원활치 않아서 나타나는 예술교육의 시차(時差)와 문화 패턴의 전환 속도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의 문화예술 전문 인적자원(Human Capital)의 결핍은 '그 나물에 그 밥' 속에 문화공연예술의 신선도를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악순환의 구조를 도려 낼 근원적인 처방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제주는 남겨진 문화유산이나 갉아먹는 유약한 후손

들의 도시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참담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 인적자원 수급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총체적인 인재육성 교육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인재부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제주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대도시 의존의식이 제주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전문 인력의 고갈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존의식은 자립, 자치, 자전력(自轉力)을 상실케 하며 정체성 결여와 함께 현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습성을 낳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건전한 의존의식을 과감히 도려내지 않는다면 제주는 대도시 문화에 예속된 생명 없는 도시로 추락할 것이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만들어져 이식된 것이 아닌, 내부에서 만들어진 전문 인재수급의 완전한 자생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이처럼 대도시 의존의식은 제주의 전문 인재 고갈현상을 주도하는 요인이며 제주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의 근간을 흔드는 암적 병폐이기도 하다. 이제 더 이상 제주문화예술 의 병적 부작용(경직성, 프로그램 개발 의욕상실, 공간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 투자 위축 등)은 멈춰져야 하며 무능한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제주의 막대한 문화예술자원들의 가치가 함몰되고 문화관광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그러므로 자체인력수급(자생력)을 위한 미시적(微視的)이고 거시적(巨視的)인 전문 인재육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 팀을 구성하여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대적 상황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제주는 이삭줍기 대체인력이나 조달하는 대도시 문화의존 위성도시로 굳어져 갈 수밖에 없다.

2) 차별화(差別化 Differentiation)

인류는 많은 종족들이 각기 다른 지리적 위치와 환경에 의해 서로 다른 문화를 창조해 왔고 예술 또한 그들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발전해 왔다. 문화 역시 생활 조건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므로 지리적 환경이 각기 다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분명하다.

제주는 육지와의 분리와 고립 속에서 독특한 사회와 문화, 예술을 형성해온 탓에 유형무형의 전통문화원형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산업적 이용가치가 충분한 차별된 전통소재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차별된 제주의 문화를 현대사회의 가치로 트렌드화하는 작업의 중심에는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된 전문 고급인력의 지속적인 공급이 기본 필수요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현재 세계의 트렌드는 민족·국가 고유의 문화의 특성을 인정하고 강화하는

추세여서 제주 문화가치의 차별적 브랜드화를 서두르고 이에 필요한 전문 인재들을 양성하지 않는다면 제주는 문화예술 활동의 골 깊은 침체를 제어할 능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제주의 가치를 포기한 젊은 인재들이 대도시 문화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을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지리적 특성에 따른 정책적 지원방향의 설정과 더불어 대도시와의 차별화 정책의 확고한 유지와 콘텐츠화는 이 세대가 취(取)해야 할 정책철학의 최우선이자 목표가 되어야 하며 전문 인재 육성교육 시스템을 통해 각 분야에 고갈된 인적자원의 수급을 활성화하는 지원정책은 완전한 자생력과 가치의 차별화를 극대화하는 촉진제로서 제주형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2. 인프라 구축의 실천방안 및 기대효과

1) 제주 〈공립예술고등학교〉 유치

예술고등학교(이하 예술고)란 예술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이다. 1974년도부터 시작하여, 1992년에 특수목적고 도입을 계기로 대부분의 예술고가 특수목적고로 지정되었고, 현재 전국에 28개교의 공·사립 예술고가 있으며 서울에 8개교, 부산에 2개교, 경기도에 4개교 경북2개교 등 제주를 제외한 각 광역 시·도에 예술고가 있다(자료: 대학입학사정관제협의회). 최근에는 수원시에도 2011년 개교목표로 예술고가 준비 중이며 경남 통영시도 2014년 개교 목표로 경남도교육청과 '공립예술고등학교' 유치와 설립 지원을 위한 MOU까지 체결한 상황이다.

현재 제주에는 30개교의 공·사립 고등학교가 있지만 정작 예술재능을 지닌 학생들은 그에 상응하는 전문예술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공교육(公敎育)의 특정계열 편중화가 낳은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교육의 가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양한 공교육(公敎育)의 형태를 구축하여 각양의 인재들을 육성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정도의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교육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이처럼 제주에서의 공교육의 기회와 균등의 실종은 제주의 예술영재들이 육지를 왕래하는데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공립예술고등학교'(이하 공립예술고)마저 없는 탓에 제주의 예술영재들이 대도시 예술고등학교로 진학이 불가피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중됨은 물론 예술 인적자원들의 대도시 유출로 이어져 제주의 예술인력 가뭄현상이 고착화되고 공연예술의 심각한 질적 저하를 초래

하는 복합적 폐해를 낳고 있다. 이는 예술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교육정책으로 인해 기회와 균등의 교육적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제주에서의 공교육의 가치와 신념은 다른 대도시보다 그 실천의 범위가 넓고 다양해야 한다. 특히 지식을 생산하는 창의교육과 감성과 상상력, 통합적 사고력을 자극하는 예술교육정책의 목표들이 '공립예술고' 유치를 통해 가지지 못한 자와 앞서지 못한 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공교육 투자 확대 실시로 제주의 우수한 예술 인력자원들이 양산되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예술 활동지원 속에 문화의 세기를 준비하게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공립예술고' 유치는 문화예술 지원의 선택과 집중의 표상이자 제주지역의 문화예술인재들을 양산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2) 제주도내 대학에 〈예술대학〉 신설 및 문화예술 관련학과 신설

대학의 존재 필요성과 사회적 역할의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대학은 사회의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여 실용성을 갖는 학과들이 개설되어 문화 창달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도내 대학들에서 나타난 커리큘럼의 편중화偏重化)와 지엽성(枝葉性)은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하기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대학은 사회의 구체적인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함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사회의 실용적 요구가 접점을 이루는 지역사회와의 연대교육 강화를 꾀해야 하며 이로써 대학이 사회를 향한 지출항목(학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증대시켜가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과 사회는 서로에게 필요한 인터페이스(Interface)를 교환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해 가는 축으로서 상호 결집력을 높여 가야 함이 당연하다.

이러한 때에 제주에서의 대학과 사회의 문화예술 유통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학과의 개설이 미흡하고 일부 특정학과(음악, 미술)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제한적이며 실용성이 저하된 비효율적 유통구조를 고수하고 있어 문화예술의 구조적 불균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의 비실용적 커리큘럼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도민 생색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교수들의 빠른 현실 안주와 지역 사회의 과거 지향적 사고와 맞물려 빚어진 것이나 다름없으나 이제라도 대학은 커리큘럼의 진지한 재조정과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킬 실용적 항목을 제시하고 대학이 사회적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실례로, 현재 제주도내의 많은 문화예술 단체들 중에서 전문연주가들로 구성된 단체가 제주도립예술단이다. 여기에는 교향악단과 합창단, 민속무용단, 관악단 등이 공연주체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대학에 무용(발레)학과가 없음으로 인해 도립무용단 인력수급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단 운영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져 존립의 위기마저 초래하고 있고 특히 연극(영화)과의 부재는 도내 연극계의 불황을 장기화시켜 작품개발과 공연의욕 상실감이 누적되고 있다. 이처럼 전문 인력수급 불균형은 공연의 질적 저하와 단체의 존립마저 불투명하게 하며 특정 예술단체만 유지되는 기형적인 예술 활동구조는 도민의 다양한 '문화향유권'마저 박탈하게 한다.

이처럼 제주는 전문 인력수급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녔음에도 제주도내 대학에서의 '예술대학 신설'과 관련학과 개설을 추진하지 하지 않는 것은 대도시 의존력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빌미이며 제주문화예술의 진정한 인프라 구축은 요원하다. 그러므로 '예술대학 신설'과 함께 관련학과(양악, 국악, 미술, 무용(발레), 연극(영화), 연출, 문화콘텐츠 제작과 문예창작, 애니메이션, 디자인, 사진, 실용음악-보컬, 미디어, 건반, 작(편)곡, 재즈- 민속학과 등)의 개설로 전문 인재 배출을 지속하는 것은 문화의 세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지혜이며 제주형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의 결정체가 될 것이다. 더불어 대중 예술의 여러 장르들도 대학의 교양 교육 과정에 반영시켜 사회를 교육하고 선도(先導)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제 대학이 지역사회나 공공기관의 요구에 맞추어 필요한 전문 인력들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일이야말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공존해야 할 이유가 되며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학과를 신설하는 발상의 전환과 시대의 문화 동향을 주도할 과목들을 개설함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가 소멸되지 않도록 대학과 공공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이와 같이 대학은 시대적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지역 문화예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문예창조의 주체로서 그 존재감을 더해갈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대학은 젊은 세대를 길러내는 곳'이라는 단순차원에서 '미래 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회통합기구'라는 통섭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

3) 기대효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제주도는 문화예술의 무한한 잠재력도 더불어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을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의 원활한 수급이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제주사회 전반에 대해 기여(寄與) 항목은 많지 않은 반면, 자생(自生)항목의 비중은 많은데 이 항목들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이다. 사람(인구)이 없다는 것은 지역 경제활동의 위축과 문화예술시장의 역동

성을 약화시키므로 대도시와의 경쟁력에서 맥없이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시점에서 제시되고 있는 '공립예술고' 유치와 '예술대학 신설'은 제주문화예술 인재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서 논리와 설득력을 더해가는 동시에 제주 문화예술지형의 대 지각변동을 가져 올 것이며 다음의 기대효과는 제주가 단순 관광 기능도시가 아니라 느끼고 경험하고 숨이 차오는 감성 관광지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기여할 것이다.

첫째, '공립예술고' 유치는 예술영재들이 대도시로 유출되는 이른 바, 인력 누수현상을 막고 안정적인 전문 인력수급을 이루게 함으로써 문화예술 기반이 자연스럽게 조성된다. 이런 메리트(Merit) 때문에 다른 대도시 지방에서도 민관합동 유치위원회를 발족하여 관계기관과 중앙의 유력인사들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공립예술고' 유치는 그동안 예술적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대도시로 가기 위해 지불됐던 사적(私的), 사회적 비용 지출부담의 현저한 감소와 전문 인재 육성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확충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사교육비 규모는 이미 가계 부담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로, 이는 국가가 제공해야 할 공교육 서비스가 부실한데서 오는 폐해 중 하나이다. 그러나 '공립예술고' 유치는 제주의 학부모들의 사회적 고비용과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킴으로 공교육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공립예술고' 유치와 '예술대학의 신설'은 계속 늘어나는 제주의 문화예술 공간들의 활용가치를 높여줌으로써 문화예술의 중앙 편중화 현상을 해소하고 그로 인한 높은 수준의 예술 인재들의 지속적 확보를 가능하게 해 국제 자유도시에 걸 맞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지속시키는 한편,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델로 학습되고 차별화될 것이다.

넷째, '공립예술고' 유치와 '예술대학의 신설'로 인한 대도시 중산층 인구의 제주도 유입은 지역경제활동의 증가는 물론 제주자치도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제주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생산 유발효과와 유형·무형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켜 제주 문화관광 산업의 또 다른 진흥을 약속할 것이다.

Ⅲ. 결 론

제주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핵심 산업 육성의 골자 중 하나가 교육 개방정책이

다. 더불어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국제 초·중·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학교설립 투자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의 미래가 영어(英語)하나면 된다는 제주자치도의 단세포적 발상과 시대적 흐름의 중심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는 교육정책 입안자들의 후진적 가치관은 제주의 문화예술 황폐화를 가속화시키는 공범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문화산업의 경쟁력, 관광문화자원, 시민의 정서소통 등 어느 부분의 필요를 위해서라도 제주의 문화예술 전문교육환경의 변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인지해야 한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다. 제주에서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보장은 인재육성교육이 선결됐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공립예술고'의 유치와 '예술대학 신설'을 위한 압도적인 요구 관철을 위해 제주문화예술 관련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입센(Bsen, Henrik)이 "예술가의 사명은 경계선 표지의 말뚝을 옮기는 것이다"라고 했듯이 제주문화예술계의 경계선 표지의 말뚝을 옮기는 일에 지불해야 될 어떠한 대가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잡탕문화와 짝퉁문화가 판치는 시대에 제주는 무엇으로 문화생존 법칙을 마련할 것인가? 결국 자기 정체성, 지역공동체와 민족 정체성, 타문화 정체성, 세계시민적 정체성 등을 담아내는 대항문화가 절실하다. 조상이 물려준 문화의 정서도 모르면서 편하고 쉽다는 단순 논리로 잡탕문화를 받아들이고 짝퉁문화를 양산하는데 만족도의 수치가 설정된다면 제주의 미래는 없다.

그러므로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는 융복합 문화시대에 배치(背馳)되는 정책입안자들의 화석화된 인식으로는 짝퉁문화의 거대한 시장에 맞서 제주문화의 자생력과 차별화의 밀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산업 인프라가 취약하고 전문 인력 또한 부족한 제주 문화산업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양성과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융합형 혁신전문가를 양성하고 창조적인 통섭(Consilience 通涉)마인드를 가진 인력이 필요하기에 인적자원의 균형적 조달과 전문교육의 강화는 핵심적인 정책이슈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선 설정된 좌표의 과감한 수정과 전문 인재육성 교육정책의 실현 의지가 절실하며 이로 인해 얻어질 창조적인 전문 인재들이 대항문화의 주체가 될 때 제주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은 세계로 나아가는 탄력이자 세계를 끌어들이는 힘이 될 것이며 마침내 제주는 세계의 목표물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봉준, 『지식사회 대학을 말한다』, 선인출판사 2010.

김용석, 『교수신문』, 2003.

김원제, 『월간 프린팅코리아』, 6월호 통권 84호. 2009.

표신중, 『기전문화예술』, 7,8호 통권26호 2003.

제주도내 공공문화 인프라와 효율적 운영 방안

김 해 곤
섬아트연구소장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문화의 개념
2. 국내·외 대표적인 공공 문화 인프라
3. 제주도내 공공문화 인프라 현황
4. 제주도내 공공문화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 방안

Ⅲ. **결론**

I. 서 론

2010년 세계디자인 도시로 서울이 선정되면서 디자인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문화라는 것이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 이전부터 정부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미디어를 통한 간접 문화체험 등 대중들의 문화에 대한 눈높이도 한층 높아졌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문화 인프라 공간의 확대 및 전문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문화예술은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정부의 체계적인 문화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각 지역의 문화공간은 랜드마크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지역문화에 흡수되어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즉 문화공간은 문화적인 성장과 함께 지역 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주고 지역 이미지 향상은 물론 고용창출이라는 사회적 문제까지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정부의 정책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문화의 직접적인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다. 그렇게 때문에 문화공간은 지역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공간이 조성되기 전부터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렇게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탄생한 공간은 건물 자체에 예술적인 요소를 부가함으로써 최고의 랜드마크로 부상시키며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방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 관광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과 지역의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시·도립 미술관이 없는 곳은 충청북도를 비롯해서 다섯 곳밖에 없다. 우리나라 문화 인프라는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서 도립 미술관의 건립은 지역문화예술계의 과제이다. 문화 인프라는 이러한 시설 뿐 아니라,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공·사설 문화재단, 공공기관의 문화관련 부서, 문화정책, 그리고 행정가들의 문화 마인드까지 그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Ⅱ. 본 론

1. 공공문화의 개념

공공성(公共性)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일컫는다. 공공성은 문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시작된다. 그 공간은 다양한 사람들의 행태와 양식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는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고 패러다임을 전환시킨다. 오늘날에 있어서 문화의 개념은 예술 활동을 포함하여 심미적 차원을 지닌 인간의 모든 정신적 물질적 창조활동과 그 결과물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전 인류의 총체적인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3] 문화는 하드웨어인 인프라와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 휴먼웨어인 인력의 세 가지가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결합되어야 효율적인 환경이 형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화 인프라 정책은 하드웨어 확충 뿐 아니라 프로그램과 인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공공문화 인프라 조성과 함께 전문 인력 육성과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문화를 통해 문화적인 삶이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문화가 향유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경우 주민의 문화적 수요에 비해 교육 및 문화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휴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의 예술과 문화시설 및 각종 교육, 정책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문화적 여건을 문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화 환경이 주는 사회·경제적 영향은 오늘날 점점 그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문화 환경은 문화예술을 지역민의 삶의 증진 및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총체적 활동 개념이다. 이러한 지역 활성화 움직임은 21세기가 문화의 시대이자 문화가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대 이후 예술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은 역사 유산의 보호영역으로 시작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활동지원으로 볼 수 있다. 근래에는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도구이면서 사회통합 및 발전의 핵심수단이다.[4] 공공문화 인프라는 대표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을 비롯하여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을 일컫는다. 공공문화 인프라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의 열악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3) 지역의 공공문화 인프라 활성화방안 연구-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효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황시권,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p.5
4) PUBLIC [공공성 :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김세훈, 현진권, 이준형 지음, 미메시스, 2008

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과 함께 각 지자체의 정책 의지와 노력의 적극성을 요한다. 아직 현실은 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낮은 재정자립도,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로 지역문화의 중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각 지역의 공공문화 인프라는 지역적 여건과 정체성을 고려한 특화를 통해 다양해야 한다. 지역에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이 설립되면 실재하는 지역의 문화 환경을 발전시키고 지역민들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지자체별로 기초자치단체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문화 공간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2. 국내외 대표적인 공공 문화 인프라

공공문화는 예술이 지역에 주는 영향이라는 의미에서 그 파급효과가 직접적이고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 목적이 공공성 제고인 만큼 사회적 영향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공성을 표방할 경우 경제성보다는 공공의 편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효과보다 적을 수 있으나 지역과 주민 다수에 주는 비경제적 측면의 영향력만큼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의 빌바오는 문화예술을 통해 낙후되었던 지역을 재생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스페인 빌바오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립함으로써 얻은 효과는 고용효과, 지역경제 유발효과, 관광객 유발효과, 지역정체성 강화효과 등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4,136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1998년 3,900명에서 2003년 4,547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8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10월 19일 개관 이래 처음 6개월 동안관람객이 60만명 이상이고 1년이 채 못 되는 동안에 1백만 명을 돌파했으며, 1년 동안 관람객 수는 모두 136만명에 달했다. 여름 성수기에 더욱 많은 관광객이 몰려서 6월이나 7월 관광객의 84%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방문했다고 하며, 이에 따라 지역의 호텔은 객실 점유율이 85%에 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보다 28%가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빌바오가 위치한 스페인의 바스크 지역은 원래 지역 분리주의 운동이 격렬한 곳이며 테러 행위가 매우 잦은 곳이어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이러한 이미지를 예술친화적인 도시로 그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다. 최근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졌다고 한다. 이는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문화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5)]

다음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의 전국문화시설총람이다.

〈표 1〉 전국 문화시설 현황

시·도	합계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계	박물관				미술관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소계	공공	사립	대학	소계	공공	사립	대학		
계	1,741	644	397	229	18	707	579	282	215	82	128	28	95	5	167	223
서 울	243	78	52	22	4	127	97	17	58	22	30	1	27	2	14	24
부 산	53	24	11	12	1	14	11	4	2	5	3	1	1	1	6	9
대 구	43	18	3	12	3	9	9	4	2	3	0	0	0	0	8	8
인 천	47	17	9	8	0	17	14	7	6	1	3	1	2	0	5	8
광 주	37	16	11	5	0	12	6	4	0	2	6	1	4	1	4	5
대 전	43	17	15	2	0	19	15	3	6	6	4	2	2	0	2	5
울 산	20	9	5	4	0	4	4	3	0	1	0	0	0	0	2	5
경 기	308	130	113	11	6	123	97	40	49	8	26	5	20	1	24	31
강 원	140	45	22	22	1	64	58	40	13	5	6	3	3	0	13	18
충 북	87	28	13	15	0	38	32	20	8	4	6	2	4	0	9	12
충 남	117	46	26	20	0	42	37	22	13	2	5	0	5	0	12	17
전 북	105	42	24	17	1	32	29	20	5	4	3	2	1	0	17	14
전 남	125	52	31	21	0	38	26	20	4	2	12	2	10	0	13	22
경 북	161	54	25	28	1	65	60	39	10	11	5	1	4	0	19	23
경 남	134	46	22	24	0	51	46	28	13	5	5	3	2	0	17	20
제 주	78	22	15	6	1	52	38	11	26	1	14	4	10	0	2	2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시설총람(2009)

우리사회의 핵심 문화 인프라로서 대형 공공미술관이 전국 단위로 들어서고 있다. 1986년 국립현대미술관의 과천 신축개관 이후에 2002년 서울시립미술관의 신축 이전, 1992년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1998년 부산시립미술관과 대전시립미술관 개관, 2004년 경남도립미술관과 전북도립미술관 개관, 2006년에는 경기도미술관이 개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문화정책이 일반 대중의 문화에 대한 실질적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담보로 하는 다원적인 지역문화정책으로 표출되고 있다.[6)]

5) 예술의 사회의 기여에 관한 국내외 실증사례 연구, 20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pp. 87~88
6) 지역의 공공 문화인프라 활성화방안 연구-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효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황시권, 전

최근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대여소나 시험공부를 위한 독서실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대규모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기원전 3세기 초에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착안으로 개관해 로마시대까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대 세계의 가장 큰 도서관이자 학문과 예술의 상징이었던 이 도서관은 2002년 초현대식 건물로 개관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적 정황은 지금처럼 누구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나 귀족 등 신분 높은 사람들만이 부의 상징으로 도서를 수집할 수 있었다. 현대적인 개념의 공공도서관 원형은 1731년 벤저민 프랭클린이 설립한 회원제 대출도서관 필라델피아 도서관회사로 알려져 있다.

2009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는 680여 곳에 이른다. 일본의 경우는 전국에 3,000여 개의 공공 도서관이 있으며 무대공연, 만화, 미디어 자료 등만을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전문 도서관도 1,800여 개에 달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새 시청 건물이 완공되면 옛 청사는 도서관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요즘 공공도서관은 지역민을 위해 각종 문화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남산 도서관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의 경우 특별 영화제를 기획해 감독과의 대화 자리도 마련하기도 한다. 도서관을 찾기 힘든 노인과 임산부,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정독도서관은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책 택배 서비스를, 제천 시립도서관은 노인들을 배려해 보기 편하도록 글자를 키운 책을 준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은평 구립도서관은 지하철역 무인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 680여 개 공공 도서관 중에서 최우수 도서관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오늘날 인터넷 시대가 도서관의 존재를 위협하리라는 우려가 있지만 도서관은 출처와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인터넷 세상에서 오히려 신뢰 있는 정보의 보고이며 자료 수집만이 아닌 정보생산자로서 그 존재감이 크다.[7] 국회도서관이 1998년 전면 공개된 이후 일반국민들의 이용은 매년 증가하여, 2008년 12월 기준으로 58만 6천명 이상이 국회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대규모의 양질의 장서 및 원문구축 데이터베이스는 국회의원 및 일반국민들이 국회도서관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국회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의 직업별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르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비율이 무려 41.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입법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의 순으로 높았다. 공공

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p.2

7) http://blog.naver.com/creworld

도서관으로서 국회도서관을 찾는 목적 중 자료의 충분성과 다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공성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도서관 공공기관 및 정부정보 서비스에 대한 만족 이유의 최상위에는 국회도서관이 소장한 공공기관 및 정부정보의 충분성과 다양성이 있었으며, 불만족 이유의 최상위에는 검색의 불편함과 원문 제공 상의 제한이 있었다.[8)]

3. 제주도내 공공문화 인프라 현황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자 문화가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활용한 지역개발 정책은 지역 전체의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적 접근이 부족한 가운데 성과 중심의 문화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서귀포시에 두 곳 뿐이던 미술관이 2007년 9월 제주시 한경면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 내에 제주현대미술관이 개관하면서 공립미술관이 세 곳으로 늘었고, 2009년에는 제주도립미술관이 설립되었다. 제주현대미술관과 제주도립미술관의 개관은 제주도 문화예술산업 발전에 토대가 되어 국제적인 문화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화공간의 도입이 지역문화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문화 공간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시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제주 관광코스의 하나인 신비의 도로, 제주러브랜드가 있어서 그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장리석 기념관, 시민갤러리 그리고 실기실과 강당, 세미나실을 갖춰 일상적인 커뮤니티 시설로서 다양한 참여와 체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미술관 주변과 후정에 쉼터, 소규모 야외공연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제주도립미술관 홈페이지 상에 설문조사란을 별도로 구성하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호하는 작가 및 작품 질문 뿐 아니라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이 함께 이루어졌는데, 시민대학이라고 하여 그림을 배울 수 있는 강좌 특히 서예교실을 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제주도를 대표하는 미술관인 만큼 제주도만의 특성이 반영된 전시도 좋지만, 해외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바란다는 요구도 있었다. 그리고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

8) 「국회도서관의 공공기관 및 정부정보 서비스에 대한 입법관련 종사자와 일반이용자의 이용행태와 만족도 분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9, pp.245~246.

가 많이 있어서 도슨트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함으로써 전문 큐레이터들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2007년에 개관한 제주현대미술관은 김흥수 화백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특별전시실과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그리고 박광진 화백의 작품이 전시된 분관, 그 밖의 수장고, 자료실, 아트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현대미술관내에 위치한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은 21동의 예술인 창작 건축물이 있고, 야외공연장 시설과 어린이 야외조각공원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제주아트센터는 문화예술 진흥기여 및 공연예술 육성을 위해 2006년 1월 착공 3년 4개월만인 5월 국비20억 원, 지방비 294억 원 등 총사업비 314억 원을 들여 부지면적 2만6,691㎡, 건축면적 9,391㎡ 지하 2층, 지상 3층 객석 수 1,184석으로 준공되었다. 제주 최대 규모의 전문공연장으로 건립되는 시설의 명칭을 지난 9월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제주아트센터(Jeju Arts Center)로 명명했다.

제주도내 문화의 집 프로그램(2010년 8월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으로 연동, 노형동, 이도1동, 성산읍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표 2〉 문화의 집 프로그램

(2010년 8월 기준)

연동 문화의 집	스포츠댄스, 고전무용, 사군자교실, 생활영어(초급), 태보 건강교실, 일본어(초급), 풍물교실(초급), 유아 창의블럭 교실, 어린이 두뇌향상교실, 서예교실, 풍물교실(민속보존회), 관광생활일본어(중급), 어르신댄스, 요가
노형동 문화의집	요가, 어르신 건강 체조, 서예교실, 노래교실, 시낭송 교실, 생활 공예, 자전거교실, 수리수리 과학마술, 뮤지컬 잉글리쉬, 컴퓨터교실초급1, 컴퓨터교실초급2
이도일동 문화의 집	인문학강좌교실, 풍물교실, 고전무용, 사군자교실, 민요교실, 요가교실, 즐거운 노래교실, 어르신 건강 체조, 어린이 영어교실(초급)
성산읍 문화의 집	민속무용, 찾아가는 문화아카데미, 우리 향토문화 바로알기, 민요강좌,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개선, 풍물강좌, 열린 주민사랑방 교실, 컴퓨터강좌, 성산읍 일자리 박람회, 찾아가는 복지 프로그램(이동경로식당운영), 소외계층 지역 청소년, 생태문화프로그램, 생태와 지역사회 진흥, 탁구교실, 중국어강좌, 가요교실, 관광일어, 태보 다이어트댄스, 수지침, E.M제조 및 활용교육, 컴퓨터기초, 서비스 혁신 및 자치능력 향상교육,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지역경제 살리기 토론회, 아토피 비누 만들기, 홈패션, 컴퓨터 자격증반, 돌리고 댄스, 기초일본어 배우기, 배드민턴 교실, 가요교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연회, 농업기술교육, 독거노인 무료도배, 홀로 사는 노인 자매결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 내 문화의 집은 각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서 대체적으로 요가, 풍물교실, 배드민턴, 건강체조, 태보 등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이 다수 개설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어, 일본어, 생활영어 등 외국어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민요, 가요교실과 같은 음악프로그램과 컴퓨터관련 기초 자격증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제주도만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보다도 보편적으로 대중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따라 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어서 동마다 프로그램이 유사하거나 획일화되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성산읍 문화의 집의 경우는 지역경제 살리기 토론회, 농업기술교육, 소외계층 청소년 프로그램 등 다소 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지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 지역에서 유행하는 프로그램을 단순히 차용하는 사고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문화 수혜의 기회를 가질 때 비로소 문화적 인식 및 수준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은 지역밀착형의 공공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 도서관의 경우 제주시는 2004년 개관한 제주시 기적의 도서관을 비롯하여 11개의 공공도서관이 있고, 서귀포는 같은 해 개관한 서귀포 기적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11개 공공도서관과 3개의 작은 도서관이 통합시스템으로 상호대차 및 연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제주도 인구가 약 55만 명이라고 할 때 인구대비 도서관 인프라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립제주박물관 인근에 위치한 우당도서관은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하여 현재까지도 지역민들의 활용도가 높다. 우당도서관은 우당 김용하 선생의 교육정신과 향토를 아끼는 마음을 기리고 그 유지를 받들고자 김관중 대창기업회장, 김우중 대우그룹회장 등 5형제가 뜻을 모아 도서관을 건립, 선친의 호를 따서 우당도서관이라 관명을 정하고 1984년 이를 제주시에 기증함으로써 공공도서관으로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예술도서에서부터 철학, 과학도서에 이르기까지 현재 22만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디지털자료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 성인, 남학생, 여학생, 아동 열람실 뿐 아니라 장애인 열람실까지 있고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및 장애인들이 도서 택배를 통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방일리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제주탐라도서관은 1989년 6월 30일에 개관하였다. 부지면적 1만 8,137㎡, 건물총면적 4,250㎡의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서 좌석수는 총 863석으로 1층에는 성인열람실(193석), 아동자료실(120석), 참고자료실(68석)이 있고, 2층에는 중고생열람실(2실, 381석), 종합자료실(30석), 향토자료실(18석), 연수실(65석), 디지털자료실(36석)이 있다. 향토

자료실에는 제주의 향토지와 각종 문헌 족보, 교지 등이 비치되며, 디지털자료실에서는 인터넷 정보검색을 비롯하여 DVD 감상을 할 수 있고, 개인용 노트북 작업이 가능하다. 연수실은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각종 행사를 여는 공간이다. 3층은 서고로 쓰인다. 2008년 8월 말 현재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자료는 총 13만 9,741권이다.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서관 문화학교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3개월 과정에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독서지도・동화 구연・생활영어・공예・서예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여는 어린이독서교실은 제주도 서부지역 10개 초등학교의 4~5학년생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독서법・원고지 쓰는 법·구연동화・독후감작성법・독서토론 등을 교육한다. 시민정보대학은 시민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컴퓨터 기초과정과 중급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민 30명을 대상으로 4주에 걸쳐 무료로 교육한다.

2008년 11월 개관한 한라도서관은 역사는 짧지만 전국 제1호 지역대표도서관이란 명칭에 걸맞게 지역 공공도서관의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다.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르면 지역대표 도서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한다. 전국 15개 시・도에서 제주도가 최초로 한라도서관을 지역대표 도서관으로 지정하였다. 한라도서관은 어린이 자료실을 확대하고 어린이프로그램 특히 영어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초등학생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어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외국자료실 및 외국대사관코너가 있고 외국자료실의 경우 매주 1일 스토리텔링 시간을 가져 원어민 강사와 영어 관련 지도사를 초빙한다. 한라도서관에서 지역 특성화 도서관으로서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제주 문헌실이다. 제주의 정체성 확립 연구와 제주지역 지식자원의 아카이브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주 문헌실은 소장 자료 1만여 권 대부분이 도민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것이다. 1956년 발간된 제주도지(濟州道誌) 제1집부터, 보물 제652-6호로 지정된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사본, 제주4・3유적지, 제주저널 등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향토문헌이 집대성되어 있다. 이 도서관은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문화 공간으로서 도민들의 삶과 배움의 현장이 되고 있다. 개관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는 연극 공연과 북아트 만들기 체험, 전통차 체험행사도 연다. 탐라순력도는 1702년 조선시대 제주목사 이형상이 제주를 순례 및 순시한 것을 그림으로 기록한 화첩이다. 감귤을 조정에 진상하는 '감귤봉진', 한라산 중턱 마을에서 꿩 사냥을 하는 '교래대렵' 등 18세기 초 제주인의 삶과 역사가 화폭에 그대로 옮겨져 있다. 이 도서관에 와야만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제주문헌의 확보와 집중화 전략, 지역 전문가 네트워크와 향토 자료 수집 인프라 구축 목표 등은 미래 한라도서관의 가치를 분명히 나타내 주는 요소들이다.

도내 거주 내외국인들의 다문화 정보 교류 및 지역공동체의 문화 공간으로 '도서관 친구/문화예술사랑방'도 마련되어 있다. 국회디지털도서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제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코너로서 멀티미디어실은 국회디지털도서관 원문 서비스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 매월 평균 50건 정도의 검색요청이 있다고 한다. 반면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있다고 하나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대중'도서관으로서 약점이 아닐 수 없다.[9)]

〈표 3〉 제주도내 국공립 박물관 등록 현황

(2009년 기준)

시군구	구분	시설명
제주시	국 립	국립제주박물관
	공 립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돌박물관
		한라수목원
		해녀박물관
서귀포시	공 립	감귤박물관
		서귀포농업기술센터농특산물 홍보관
		서복전시관
		추사적거지 전시관
		하멜상선전시관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시설총람(2009)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시설총람(2009)를 참조하면 제주도내 국공립 박물관은 제주시의 경우, 국립 1곳, 공립 5곳으로 총 6곳이 등록되어 있고 서귀포시의 경우 공립 박물관이 5곳으로 총 11곳이 등록되어 있다. 감귤박물관, 돌박물관, 해녀박물관 등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한 박물관과 더불어 추사적거지 전시관, 하멜상선

9) 세계도서관기행, 유종필, 웅진지식하우스, 2010

전시관 등 제주도의 역사를 테마로 한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공립의 성격을 띤 박물관의 경우, 지역을 대표하고 상징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의 예술의 전당에 해당하는 문예회관은 제주시 일도2동에 위치하며 1985년 7월 19일 착공하여 1988년 8월 25일 개관, 1989년 7월부터 제주도문화진흥본부가 운영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문화와 예술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시설은 대극장·소극장·전시실·놀이마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도에서 유일한 전문 공연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공연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회전무대와 이동무대, 무대 앞 밑에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소인 오케스트라피트와 음향반사판, 각종 세트 장비와 조명 등이 고루 설비되어 있다. 소극장은 독주회나 창작 활성화 프로그램, 청소년의 정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과 발표 무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에 활용된다. 전시실은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중 개방된 문화공간으로서 미술·서예·사진 작품 등 모든 장르의 전시회를 수용한다. 야외에 마련된 놀이마당은 마당극을 비롯하여 전통문화 예술행사 등에 활용되는 공간이다. 이밖에 부대시설로 연습실 2실과 분장실 4실, 어린이 놀이방, 다목적 휴게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다.

4. 제주도내 공공문화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 방안

공공문화 인프라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교육적 환경과 행정적 환경 그리고 문화적 환경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문화 인프라 구축은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는 물론 지역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지역 경제까지 되살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역의 문화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일환으로 제주도 역시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도서관, 문화의 집 등 문화 수요자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 생겨나고 있다.

제주도내 국공사립 대학교내 문화 인프라 관련학과 현황을 살펴보자. 제주도에는 제주대학교, 탐라대학교, 제주산업정보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한라대학교 이렇게 5개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다. 미술대학 내 세부전공은 제주대학교의 경우 서양화, 동양화, 조소 등 순수 미술전공이 있는 반면 공공문화 인프라와 직접 관련 학과는 없다. 제주관광대학교의 경우 쥬얼리 디자인과, 인테리어 건축과, 호텔광고 디자인과가 있고 한라대학의 경우 시각디자인과가 있다. 제주산업정보대학의 경우는 건축 디자인과, 문

화 이벤트 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과가 있으며 탐라대학교의 경우는 미술관련 학과가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문화 인프라 구축의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부터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된다. 지역의 문화 인프라 구축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고 운영되고 발전시켜야 한다. 첫 번째가 그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이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공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민들의 문화 충족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제주도도 이와 관련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 전공학과를 신설하여 전문 인력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알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현장에 직접 가보고, 그들의 새로운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우선 정책을 실행하는 지역문화행정인력과 지역 문화 활동가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들의 연수경험을 자료화하고 관리하여 지속적인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으로 제주도의 특색에 맞는 공공문화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된다.

공공문화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는 행정적 지원이 마련되었을 때 활성화가 되는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각 기관 내에 공공문화에 대한 지원책과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내 독립적인 공공문화 관련 부서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공공문화에 대한 부서가 오래전부터 개설되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에 맞고 대중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되고 있다.

전문예술인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와 함께 지역문화 발전과 도민들의 문화충족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예술인들의 적극적 개입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문화 발전의 일환으로 사설 문화예술단체와 공공문화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지역민의 관심 속에서 피어나고, 다른 지역의 관심을 모아 향토애를 키우고, 문화관광 인프라로 발전시켜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10] 기존의 공공문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즈음에 지극히 제주다움과 또는 세계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문화 프로그램과

10) 문화관광부·한국문화정책연구원, 2006문화정책백서, 2007

독창성이 요구된다. 즉 각 문화시설마다 특성과 개성이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주도립미술관은 매년 1회의 문화엑스포를 개최하여 문화벼룩시장, 아트페어, 각 분야별 문화 박람회 등을 열어 자연스러운 지역문화축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지역 내 공공도서관에서는 제주의 설화와 전설을 활용한 그림책 전시와 그림책 제작에 필요한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과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하여 제주 콘텐츠 발굴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제주아트센터의 경우 제주를 콘텐츠로 한 공연을 주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전도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에만 가능한 문화 축제를 만들고, 점차 전국을 대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급적 획일화된 문화의 차용은 지양하고, 제주다움과 현대문화를 결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문화 인프라 성격에 따라 세계적인 문화예술제가 갖추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건설로 명실공히 국제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비록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은 아닐지라도 국제성을 띠거나 범국가적인 수준에 걸 맞는 공공문화 인프라 하나는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문화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행정가들의 문화마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도민의 높은 문화수준이 갖추어져야만 할 것이다.

제주도내 문화 인프라 간의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 이는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다른 지역 문화 인프라와의 차별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타 지역 성공사례를 차용하는 것은 획일화된 문화를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축된 문화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을 보강하여 변화무쌍한 시대의 흐름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도권 및 대도시 어린이, 청소년들은 전시문화를 쉽게 접할 수가 있고 그 선택 또한 다양하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전시공간이 부족해 어린이, 청소년들이 전시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 그러나 문화공간이 부족한 만큼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질 높은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공공문화시설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에듀케이터와 다양한 예술기획을 진행할 큐레이터 등 전문 인력 양성이 꼭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Ⅲ. 결 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부의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이 매우 적극적이다. 이는 문화 수혜자로서의 대중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인 문화 체험 등으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중들의 요구로 문화 공간 역시 확대되고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문화 인프라 정책은 하드웨어 확충 정책 뿐 아니라 프로그램과 인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공공 문화 인프라 조성과 함께 전문 인력 육성과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문화를 통해 문화적인 삶이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문화가 향유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의 경우 주민의 문화적 수요에 비해 교육 및 문화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휴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의 예술과 문화시설 및 각종 교육, 정책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문화적 여건을 문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화 환경이 주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은 오늘날 점점 그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대형 공공미술관이 전국 단위로 들어서고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공공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도 내 이미 조성된 공공문화 인프라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제주도 지역 대학에 문화 관련 유사 학과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관련 전문가 인력 발굴은 물론, 지역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 시켜주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문화 관련 전문과정과 전문 교육 인력이 필요하고 이는 제주도의 특색에 맞는 공공문화가 지속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가 탄탄하게 구성된다면 질 높은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공공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는 행정적 지원이 마련되었을 때 비로소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각 기관 내에 공공문화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아직 예술인들의 적극적 개입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전문예술인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는 물론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충족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 공공문화 인프라 시설마다 특성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민들에게 다소 어려운 국제적 행사보다는 제주도민을 위한 충실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거기에 맞는 알찬 행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매년 1회의 문화엑스포를 개최하고 그곳에서 문화벼룩시장, 아트페어, 각 분야

별 문화박람회 등을 열어 자연스러운 지역문화축제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제주지역 내 공공도서관에서는 제주의 설화와 전설을 활용한 그림책 전시와 그림책 제작에 필요한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과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하여 제주 콘텐츠 발굴의 장을 마련한다. 또 제주아트센터의 경우 제주를 콘텐츠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주제로 매년 전도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제주도에만 가능한 청소년문화 축제를 만들고, 점차 전국을 대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은 단순하고 획일화 된 것을 지양하고 제주다움과 현대문화를 결합한 작품으로 승화시켜 그곳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도민들에게 감동과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공공문화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세계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문화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마인드와 공공문화의 전문가가 많이 양성되어야 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도민의 문화수준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화훈, 이준형, 현진권, 『PUBLIC 〔공공성 :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미메시스, 2008.

문화관광부·한국문화정책연구원, 『2006문화정책백서』, 2007.

유종필, 『세계도서관기행』, 웅진지식하우스, 201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회도서관의 공공기관 및 정부정보 서비스에 대한 입법 관련종사자와 일반이용자의 이용행태와 만족도 분석」, 20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 사회의 기여에 관한 국내외 실증사례 연구」, 2008.

황시권, 「지역의 공공 문화인프라 활성화방안 연구-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효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우당도서관 http://woodang.jejusi.go.kr

제주도립미술관 http://jmoa.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http://www.jejuculture.or.kr

제주현대미술관 http://www.jejumuseum.go.kr

http://blog.naver.com/creworld

http://blog.naver.com/tallsnake?Redirect=Log&logNo=90087232077

제주문학관 건립 추진방향과 콘텐츠

양 전 형 / 시인

〈차 례〉

Ⅰ. **시작하며**

Ⅱ. **추진방향**

1. 문학관의 명칭과 성격
2. 소재지
3. 건립추진 주체, 건립시기, 운영

Ⅲ. **제주문학관 주요 콘텐츠**

1. 시설
2. 주요업무
3. 건물 공간 기능별 구분
4. 공간의 세부 활용과 사업

Ⅳ. **끝내며**

Ⅰ. 시작하며

근간 국내 상황을 보면, 전국 지역별로 그 지역 냄새가 물씬 나는 문학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문학관협회의 회원문학관 수도 거의 50여 개에 달하고 있지만 제주도에는 문학관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지역의 정체성이 집결된 문학관을 통하여, 방치해 두면 유실되어 없어져 버릴 시대상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귀중한 자료들을 유가족이나 뜻있는 사람 혹은 지자체의 도움 등으로 성실히 수집 보전하여 후대의 계승과 평가를 통한 개선 등 올바른 제주문학의 진화를 꾀하고, 관광과 연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제주도에 문학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 우리 제주도에도 문학관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십여 년 만에 행정과 도의회, 문인협회와 작가회의 회원들로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러 차례의 의견개진과 타 문학관 견학 등을 통하여 문학관 설치 시작의 의미를 공유하게 되었고, 신임 도지사도 후보 시절 공약사항 중에 제주문학관 건립의사를 밝혔듯 제주문학관 건립 분위기가 상당히 성숙되어 있다. 2010년 봄 사라봉 인근에 '제주문학의 집'을 제주도에서 개관하여 문학관추진위원회의 사무실을 비롯한 문인협회와 작가회의 사무실과 세미나실 북 카페 등을 개설하여 문학관련 강연, 문학세미나, 문학아카데미 등을 열고 있으며 문학애호가들의 자유롭고 빈번한 출입 등 예비문학관 격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되는 제주도만의 특색이 살아 있는 문학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정리해서 이상적인 문학관을 건립하는 일이 한 술밥에 배부르듯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으리라 본다. 의견통합과 시행착오 그리고 예산 등 어렵고 힘든 여정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날림공사의 건축물이 부실하듯 우리 제주도의 문학관도 조급증에 빠지지 않은 신중한 자세로 기초부터 탄탄한 절차를 거치면서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Ⅱ. 추진방향

1. 문학관의 명칭과 성격

1) 명칭

'제주문학관'이라 하는 게 좋다.

2) 성격

가) 전국 문학관들의 형태와 성격을 살펴보면 특정작가를 중심으로 한 문학관, 특정한 장르와 주제를 중심으로 한 문학관, 한국문학 전반을 아우르는 문학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제주문학관 추진방향은 제주지역 전반과 제주도라는 섬에 연결되는 문학관련 사항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문학관이어야 한다. 전국 문학관들의 현황과 비교했을 때, 특정작가 중심이 아닌 제주문학인(제주문학과 관련된 도외문인 포함) 전반과 특정장르와 주제 중심에서는 구분된 코너(예 : 향토문학, 4·3문학, 유배문학, 해양문학, 오름문학 등)를 마련할 수가 있겠고, 한국문학 전반을 아우르는 부분에서는 한국문학의 큰 뿌리를 보여주는 소규모 코너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덧붙여, 소규모 외국문학 코너를 마련할 수도 있으며 사안의 비중에 맞추어 조명의 크기를 달리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다) '제주문학관'이라는 명칭으로 종합문학관이 건립된 후, 체계적으로 정리된 제주문학사를 통하여 진실된 제주역사를 알 수 있다면 좋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기본적으로 다음 몇 가지 성격을 지향하는 게 좋을 듯싶다.
첫째, 지역문학 박물관(전시관, 기념관, 도서관 등)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제주문학 연구센터로서의 공간이어야 한다.
셋째, 문학행사를 전문적으로 치러내는 공간이어야 한다.
넷째, 제주도민과 제주문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목표를 공유하여야 한다.

2. 소재지

1)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용이할 것.
2) 기본 조경과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
3) 문화예술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구)제주시 인근 등.
4) 위의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려면 지금의 서문통-묵은성-관덕정-칠성로(탑동)-중앙로-동문통 인근까지 혹은 문화벨트를 고려한 신산공원 인근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관광용과 견학용인 주차 공간 부지 확보가 어려우면 위의 1), 2)항이 충족되는 곳이면 좋겠다.

3. 건립추진 주체, 건립시기, 운영

1) 건립추진은 제주도와 문학관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현재 '문학의 집' 설치까지의 절차처럼 제주도와 문학관추진위원회가 일관성 있게 건립 시까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며, 필요예산 등은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2) 건립절차와 시기

가) 현재 행정이나 문학관추진위원회에서 기본계획부터 건립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구상하고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첫 단계로 '제주문학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용역 등을 발주하고 학예연구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기획, 사료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행정과 추진위원회는 업무를 적정분담 및 긴밀한 협조하에 원활하게 추진하는 절차가 필요하겠다.

나) 특히, 제주도의 의지가 큰 관건이라 생각되며 새로운 도정의 임기 내에 개관이 이루어졌으면 가장 좋겠다.

3) 건립 후 운영

가) 지역특성을 중요시하는 종합문학관인 만큼 개인이나 법인의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주문학관은 도립으로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관광'에도 접목시키고 국고보조 등 지원받을 수 있는 다각도의 방도도 찾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산관련에서 건립 후 수익창출사업을 찾아내거나 후원자 물색 등 일부 운영예산 확보에 문학단체나 문학인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함은 당연하다고 본다.

나) 문학관인 만큼 문학관 관장은 문학인이 담당하는 게 좋겠고, 실질적으로 문학관을 꾸려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 채용 및 제주도의 지원을 통하여야 문학관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되리라 생각된다.

Ⅲ. 제주문학관 주요 콘텐츠

1. 시설

1) 부지 : 3,300㎡ 내외

도민, 문학인, 관광객 등 접근이 용이한 시내권을 희망하기 때문에,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한 면적으로 기본조경과 최소한 주차시설이 필요하다. 시내 외곽지역이면 쾌적한 환경을 위해 더 넓으면 좋을 것이다.

2) 건물 : 종합건물 1,155㎡(3층) 정도, 별관 165㎡ 규모의 3동 정도.

종합문학관으로서의 전시, 강당, 세미나실, 다목적극장, 사무실(문학단체 사무실 포함), 북 카페, 집필실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규모라 생각된다.

3) 옥외 주차장 등

기본조경 외에 관광, 견학용 차량 등의 주차공간도 필요할 것이다.

2. 주요업무

1)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및 관람업무
2) 문학교육, 문학자료 보급, 문학홍보
3) 제주문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문학인(지역문학인과 제주문학에 도움 되는 타지 문학인 포함) 문학 활동 지원
5) 제주문학관련 사회교육 프로그램, 문학행사 등 주관(문학단체 주관사업 외)
6) 기타 제주문학과 관련한 제사업 및 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 건물 공간 기능별 구분

1) 별관 3동은 향토문학관, 4·3문학관, 해양문학관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2) 종합관
(1) 1층 : 상설종합전시, 정보 검색실, 문학관사무실, 숙직실, 기계실, 창고 등
(2) 2층 : 기획전시, 강당, 세미나실, 다목적극장, 북 카페 등
(3) 3층 : 문인협회와 작가회의 및 기타 사무실, 조사연구실, 창작편집실, 회의실, 제자료 수집 보관 창고 등으로 하되, 기능별 면적은 설계용역 등 구체적 계획 시 적정 분배하며 조정하면 되리라 본다.

4. 공간의 세부 활용과 사업

1) 별관

* 향토문학관 : 제주도의 자연, 풍물, 풍속, 사상 따위가 들어있는 민요와 설화 등 구비문학, 고전문학과 기타 제주의 전통적 특색이 드러나 있는 문학 자료들을 수합 전시하는 공간인데 기존 향토문학자료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추후 제주향토문학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별관으로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다.

* 4·3문학관 : 4·3이 60년을 넘어섰고 4.3평화공원 등 제주의 아픈 역사를 알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만, 4·3을 떼어놓고 제주문학을 논할 수는 없으리라 본다.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의 인권회복과 치유가 계속되고 있지만 4·3문학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목을 집중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해양문학관 : 제주라는 섬이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바다와 그 관련 내용을 제재나 주제로 한 문학을 분리하여 제주인의 삶 한 부분을 조명하는 별관이었으면 좋겠다.

2) 1층

(1) 종합전시관 세부코너

종합전시관으로서 사안의 크기와 자료의 다소에 차이는 있겠지만 다양한 코너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내용상 코너별 중복도서 등의 경우 비중이 큰 코너로 분류하되, 목록에 내용을 간단히 부기하면 될 것 같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코너를 만들었으면 한다.

* 도내 문인 코너 : 특정 코너에 분류되지 않은 일반적이고 일상을 그린 도내 문인들의 작품을 집결시킨다.

* 출향 문인 코너 : 특정 코너에 분류되지 않은 일반적이고 일상을 그린 출향 문인들의 작품을 집결시킨다.

* 작고 문인 코너 : 제주 출신 작고 문인들의 초상, 친필원고, 애장품, 기타자료 등을 전시하고 제주문학에 기여함과 제주문학인임을 기린다.

* 동인 문학 코너 : 도내 동인문학의 변천과정과 자료를 한 곳에 집중수합 전시하여 문학 동인들이 제주문학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발전적 진화를 기대한다.

* 유배 문학 코너 : 역사적으로 제주도가 선비들의 유배지이다. 제주에 유배되었던 문인들의 문학 자료를 수집 전시하여 옛 제주의 풍속, 생활상 등 역사를 타지인의 시각으로 보는 코너도 필요하다.

* 항일 문학 코너 : 일제강점기와 관련한 제주도민의 독립정신과 저항의식이 들어있는 문학작품을 전시한다.

* 객원(문학)코너 : 문학인들 중 내도하여 임시 거주하거나 여행 등을 하면서 제주를 주제로 쓴 작품이나 흔적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다른 눈으로 보는 제주, 혹은 제주문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수집 전시한다.

* 오름 문학과 올레 문학 코너 : 오름과 올레가 제주관광과 연계하여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학의 확대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학 자료를 미리 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 육필원고 전시코너 : 제주출신 문인들의 육필원고를 수집 전시하는 공간으로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벌여나가면 차세대 문학 자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기타 코너
  - 한국문학 코너 : 한국문학 근·현대사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소규모 기본 코너
  - 세계문학 코너 : 동·서양을 비롯한 세계문학의 주요 뿌리를 알 수 있는 대표이론과 작품집 소규모 기본 코너.
  - 사이버문학 코너 : 시대의 조류에 의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문학이 확산되는 실정이다. 차후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제주와 관련된 사이버 문학 자료를 수집 전시 혹은, 저장 및 열람을 하는 곳이다.
  - 각종 문예잡지 코너 : 대표적이고 가치 있는 문예잡지를 선정하고 전시하여 문학 지망생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한다.
  - 교양도서 코너 : 대표적이고 가치 있는 교양도서를 선정 구입하여 내방객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한다.
  - 도내 주요 문화단체 코너 : 제주도 내의 주요문화단체에서 발간되는 정기간행 홍보물 등 수집 전시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 그 외에도 특색별 코너가 더 있으리라 생각되며, 필요하면 더 세분화된 전시코너를 운영할 수도 있겠고 의미가 중복되거나 복잡하면 통합하여 줄일 수도 있다. 코너별 공간의 크기는 추진 중에 자료의 다소 등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며 조정

하고 별관이 더 필요하면 건축물을 조정하면 되리라 본다.

(2) 정보 검색실 : 문학관 내의 건물구조, 자료 등을 안내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내방객 스스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무실, 숙직실, 기계실, 창고 등 : 직원 근무 공간과 관리실 공간 확보

3) 2층

(1) 기획전시장 :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문학단체의 요청에 의한 행사용 등 수시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중 다양한 변모를 꾀하며 문학인 단체 또는 개인들의 기획전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 강당, 세미나실, 다목적극장

문학관 역할 중 아주 활발해야 할 동적인 공간으로 다음의 주요사업을 치르는 곳이었으면 한다.

* 문학관련 강연, 각종세미나, 아카데미 등 운영
* 문학광장 또는 문학의 밤(작가와의 대화 등)
* 청소년 심성수련교실(문학 강좌, 백일장 등)
* 시민 시낭송회, 낭송경연, 문학공연(시극, 구연동화 등)
* 시상식, 출판기념회 등
* 관광객을 위한 제주설화극장 공연 등
* 문예대학, 어머니교실 등 정기개설 운영
* 기타

(3) 북 카페

도서열람, 사랑방, 만남의 장소 등으로 필요하리라 본다.

4) 3층

(1) 사무실

문인협회 및 작가회의 사무실과 기타 필요한 소규모 사무실로 이용하여 문인들이 수시로 왕래하면서 문학관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2) 창작편집실

기본적으로 도내 문인들이 집필하는 공간이나, 국내외 유명문인들을 초청하여 제주

문학과의 접목을 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숙식이 가능한 시설을 만들어 일정기간 집필하는 도외문인들이 강당에서 유용한 특강을 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하여 제주문학관 및 제주문학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으며 제주문학관에 대한 문학 지망생들의 호감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본다. 결과적으로 문학관 활성화에 기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3) 조사연구실 : 특정목적의 조사연구에 분리된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면 한다.
(4) 기타 회의실 및 제자료 수집 보관창고도 필요하리라 본다.

Ⅳ. 끝내며

전국적으로 문학관 건립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우리 제주도도 문학인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시작해야할 단계이다. 앞의 세부의견을 바탕으로 문학관 건립 추진이 한 단계 더 진일보한 관심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실 문학관 건립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제주문학인들이 문학관 건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문학애호가 또는 일반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제주문학관이 건립되기까지 많은 문제점에 봉착하는 등 험한 길이 될 것임도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문학관 건립 이후에도 행정이나 문인들 스스로 움직여야 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도 큰 숙제가 될 것이다. 어쨌든 본문(안)은 어설프게나마 제주문학관 그림을 그려본 것이다. 보다 나은, 다양하고 진취적인 의견들이 더 모아질 때 제대로 된 문학관이 탄생하고 개관 후에도 가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복하건대 제주문학관 건립은 제주 격변기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고 제주정신이 살아 숨 쉬는 문학적 공간을 집중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며 문학인들의 적극적 참여와 제주도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문 내용 중 현 실정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간과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시된 의견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문학관 건립 추진 구체화 과정에서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9집

인 쇄 일	2010. 11. 14 .
발 행 일	2010. 11. 19 .
발 행 인	양영흠
편 집 위 원	강창화, 김연숙, 김일호, 변종태, 정민자
발행·편집	(재)제주문화예술재단 690-828 제주시 동광로 51(구, 이도1동 1244-4) 제주문화예술재단빌딩 8F Tel. (064) 748-9814, Fax.(064) 748-9815
인 쇄 처	선진인쇄사 Tel. (064) 757-4437

비매품

※ 이 책의 내용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공식적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